

#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기본연구

2013-32

박 동  
김수진  
이종선

#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보안등급

일반과제

기본연구

2013-32

박 동  
김수진  
이종선

## 머 리 말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청년 고용문제가 국가적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해 취업 위주의 전통적인 노동시장 정책에서 벗어나 창업 및 창직을 통한 새로운 노동시장 형성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창업 촉진을 위해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 중이며, 북유럽의 핀란드는 글로벌 기업인 노키아의 부진을 IT 서비스 분야의 지식창업 활성화를 통해 만회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3년 현재 IMF 위기 이후 최저인 4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청년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창조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 지원은 교수가 주도하는 이론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창조성을 제대로 발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학생들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협력적으로 창업 활동에 종사하는 창업동아리 시스템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은 물론 창업동아리 조직 활동 전반에 대한 총체적 지원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 연구는 정부의 기존 창업동아리 관련 정책 현황 및 대학 창업 동아리 실태에 대한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학생 창업 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러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지식창업으로 연계되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 동 박사가 연구책임자로서 김수진 연구원, 이종선 박사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청년 창업동아리 관련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다. 연구수행과정에서 관련자료 수집과 면담조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청년창업 관련 연구자 및 정책입안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아가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가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본 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2013년 7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 영 범

## 제 목 차 례

<b>제 1 장 서론</b>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7
<b>제2장 청년 창업동아리 관련 이론적 논의</b> .....	11
제1절 창업 및 창조성 관련 선행연구 흐름 .....	13
제2절 집합적 창조성과 창업동아리 .....	17
제3절 국내의 창업동아리 실태 및 청년 지식창업 .....	26
<b>제3장 정부의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b> .....	35
제1절 정부의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 현황 .....	39
제2절 정부의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의 문제점 .....	55
<b>제4장 대학 창업동아리 실태 분석</b> .....	59
제1절 조사 개요 .....	61
제2절 청년 창업동아리 실태 조사 결과 .....	66
제3절 청년창업 계획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	84
<b>제5장 국내외 창업동아리 우수사례 분석</b> .....	97
제1절 미국의 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	99

제2절 핀란드 알토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	112
제3절 국내 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	123
제4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분석 .....	139
<b>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b>	<b>145</b>
제1절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	148
제2절 대학 차원의 정책과제 .....	158
<b>SUMMARY .....</b>	<b>163</b>
<b>참고문헌 .....</b>	<b>167</b>
<b>부록 .....</b>	<b>175</b>

## 표 차례

<표 2-1> 집합적 창조성과 관련된 국외 연구 현황 .....	17
<표 2-2> 학교유형별 창업동아리 전문분야 현황 .....	26
<표 3-1> 정부의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 운영 현황 .....	38
<표 3-2> 창업선도대학 지원 프로그램 .....	39
<표 3-3>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 예시(입소형 창업 지원 대학-연세대) .....	41
<표 3-4>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연도별 지원 성과(2010~2012) .....	42
<표 3-5> 실전창업리그 지원 내용 .....	43
<표 3-6> LINC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 .....	45
<표 3-7> 네트워킹 파티형 멘토링 지원 진행순서 .....	48
<표 3-8>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	49
<표 3-9> 전국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참가 부문 .....	51
<표 3-10>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모집 분야 .....	52
<표 4-1> 설문조사 설계 개요 .....	62
<표 4-2> 설문조사 세부 내용 .....	62
<표 4-3> 응답자 표본의 특성 .....	64
<표 4-4> 전공 분야로의 취업의 가능성 정도 .....	67
<표 4-5> 창업관심 대학생의 향후 창업 계획 여부 .....	71
<표 4-6> 창업관심 대학생의 창업 아이템 보유 여부 .....	72
<표 4-7> 대학생의 청년창업 관심 분야 .....	73

<표 4-8> 창업관심 대학생의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	74
<표 4-9> 창업관심 대학생의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참여 경험 여부 .....	76
<표 4-10>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84
<표 4-11> 청년창업 계획 여부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91
<표 5-1> 스탠포드 경영대학의 학생 창업동아리 조직 .....	102
<표 5-2> MIT 대학의 주요 창업동아리 모임 .....	105
<표 5-3> MIT 슬로안 경영대학의 창업 관련 동아리 모임 .....	107
<표 5-4> 호서대학교의 벤처산업공학 전공 개설 교과목 .....	125
<표 5-5> 대안적 캡스톤디자인 모델 운영 .....	126
<표 5-6> 호서대학교 창업동아리 현황(2013년 6월 기준) .....	130
<표 6-1> 우리나라 엔젤투자 현황(2000~2011년) .....	156

## 그림 차례

[그림 2-1] 창업동아리 조직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	23
[그림 2-2] 집합적 창조성을 위한 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체계 .....	32
[그림 3-1] 창업동아리 운영 체계(예시) .....	40
[그림 3-2] 산학연계 동아리 지원 사업 운영 체계 예시(전북대) .....	46
[그림 4-1] 졸업 후 진로 설정 .....	68
[그림 4-2] 청년 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 .....	69
[그림 4-3]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의 적극성 정도 .....	75
[그림 4-4] 창업동아리의 적정 참여 인원 .....	78
[그림 4-5] 대학 내에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유무 여부 .....	79
[그림 4-6]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외부 투자 정도 .....	79
[그림 4-7] 창업동아리 활동 환경 .....	80
[그림 4-8] 정부 지원 청년창업 사업 참여 경험 여부 .....	81
[그림 4-9] 청년창업을 위한 교수 및 산업체 멘토링 필요성 여부 .....	82
[그림 4-10] 창업관심자들의 멘토링 경험 여부 .....	83
[그림 5-1] 호서대학교의 순환형 학생창업 지원 시스템 개념도 .....	124
[그림 5-2]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 전경 및 동아리실 내부 .....	127
[그림 5-3] 학생벤처창업관 전경 및 실내, 동아리실 내부 .....	128
[그림 5-4] 호서대 학생창업보육센터의 종합 지원 체계 .....	129

[그림 5-5] 호서대의 연도별 창업동아리 및 참여 학생 수 추이 ... 131  
[그림 5-6] 호서대의 연도별 창업동아리 지원금 추이 ..... 132

## 요 약

### 1. 연구 개요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창업 촉진을 위해 ‘스타트업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 중이며, 북유럽의 핀란드는 글로벌 기업인 노키아의 부진을 IT 서비스 분야의 지식창업 활성화를 통해 만회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 고용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한 상태이다. 청년고용률은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IMF 위기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 고용 문제는 우리 사회가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청년층의 취업에만 초점을 맞춘 소극적 고용정책만으로는 청년 고용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취업만이 아니라 창업 및 창직 등 고용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집합적 창조성’의 관점에 입각해 정부의 창업동아리 관련 정책 현황 및 대학 창업동아리 실태에 대한 분석,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러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지식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창업동아리는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보유한 다수의 학생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 핀란드의 알토대학에는 ‘알토스’라는 학내 창업동아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MIT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주도하는 각종 창업동아리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창업선진국들에서는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창업자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 지원은 교수가 주도하는 이론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론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창조성을 제대로 발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협력적으로 창업활동에 종사하는 창업동아리 시스템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은 물론 창업동아리 조직 활동 전반에 대한 총체적 지원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하히 조기에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식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강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 2. 연구 주요 내용 소개

이 연구의 제2장에서는 청년 창업동아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창업동아리라는 조직에 주목한 이유는 청년창업이 소수 천재들의 두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집합적 창조성’(collective creativity)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창업동아리를 조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동아리 지원 현황, 대학생 대상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학 창업동아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국의 창업동아리 참여자 및 창업관심자 900명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입각해 다양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창업동아리 우수사례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핀란드를 중심으로 해외 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국내 사례는 학생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을 보유한 대학 사례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제6장에서는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2~5장까지의 논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을 살펴보았다.

### 3. 대학생 창업동아리 실태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청년창업이 학생 개개인보다 집합적 창조성의 관점에서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접근해야만 성공적 결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본가정 하에 전국의 대학생 중 창업에 관심을 가진 900명을 샘플로 추출하여 실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는 창업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이 학생들의 창업 계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향후 청년창업 계획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창업동아리 관련 변수들을 포함시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단, 창업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설명변수 중에는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변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변수들과 분류하여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2개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

[모형 1]

$$Y = \ln p / (1 - p) = a + b_1 X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X_5 + b_6 X_6 \\ + b_7 T_1 + b_8 T_2 + b_9 T_3 + b_{10} T_4 + b_{11} T_5 + \epsilon$$

[모형 2]

$$Y = \ln p / (1 - p) = a + b_1 m_1 + b_2 m_2 + b_3 m_3 + b_4 m_4 + b_5 m_5 + b_6 m_6 \\ + b_7 T_1 + b_8 T_2 + b_9 T_3 + b_{10} T_4 + b_{11} T_5 + \epsilon$$

[모형 1]은 ‘전공분야 취업 가능성’,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 ‘창업 아이템 보유 여부’, ‘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멘토링 필요성’, ‘멘토링 경험 여부’ 등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6개 설명변수로 구성된 청년창업 계획 여부에 대한 일반 요인 분석 모형이다(N=900). [모형 2]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 ‘동아리 활동의 재미 정도’, ‘동아리 참여 적극도’, ‘창업경진대회 참여 여부’, ‘동아리 전용 공간 유무 여부’, ‘동아리에 대한 외부 투자 정도’ 등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 한해 조사된 6개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분석 모형이다(N=460).

한편, 각각의 모형에서는 ‘학교급별’, ‘학년’, ‘창업동아리 가입기간’, ‘성별’, ‘학교 소재지’ 등 5개의 통제변수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청년창업 계획 여부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exp(B)	표준오차
[모형 1] N=900	전공분야 취업 가능성	-0.320	0.726***	0.097
	창업 실패 부담감	-0.167	0.846*	0.102
	창업아이템 보유 여부	1.984	7.271***	0.211
	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0.917	2.501***	0.227
	멘토링 필요성	0.281	1.324**	0.110
	멘토링 경험 여부	0.619	1.857***	0.229
	학교급별	0.396	1.487	0.296
	학년	-0.109	0.897	0.106
	가입기간	0.027	1.027*	0.016
	성별	0.172	1.187	0.200
	지역	-0.037	0.964	0.278
	상수항	-1.776	0.169**	0.720

<표 계속>

구분		회귀계수	exp(B)	표준오차
[모형 2] N=460	-2 Log 우도	650.456		
	카이제곱(절편모형-이론모형)	204.144(df=11, p=.00)		
	Nagelkerke $R^2$	0.365		
	동아리 활동 만족도	0.142	1.152	0.154
	동아리 재미 정도	0.121	1.128	0.159
	동아리 참여 적극도	0.152	1.164	0.128
	창업 경진대회 참여 여부	0.373	1.451	0.260
	동아리 전용공간 유무 여부	0.495	1.641*	0.285
	동아리 외부 투자 정도	-0.438	0.645***	0.140
	학교급별	0.591	1.806*	0.330
	학년	0.000	1.000	0.132
	가입기간	0.042	1.043**	0.017
	성별	0.586	1.797**	0.249
지역	-0.063	0.939	0.309	
상수항	-2.031	0.131***	0.788	
-2 Log 우도	424.339			
카이제곱(절편모형-이론모형)	54.602(df=11, p=.00)			
Nagelkerke $R^2$	0.195			

\* : p<0.1, \*\* : p<0.05, \*\*\* : p<0.01

이상의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이 한 단위 낮아질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1.377배(1÷0.726)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전공 분야 취업과 창업계획 수립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학생들의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학생들의 창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한 단위 줄어들수록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창업계획 확률은 1.182배( $1 \div 0.846$ )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창업 실패에 대해 학생들이 가진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청년창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대책과 함께 추후 창업 활동이 실패하더라도 학생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정신적 충격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을 덜어 줄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7.271배나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에 있어서 창업아이템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효성 있는 창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창업관심자 중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2.501배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에 있어서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경험을 활용하여 창업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분산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상호 융합함으로써 청년창업을 더욱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섯째, ‘멘토링 필요성’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창업관심자들의 창업계획 확률은 1.324배 높아지고, ‘멘토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계획 확률이 1.857배 높아진다. 이는 교수나 산업체 관계자들이 창업 초년생인 학생들에게 창업활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멘토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창업 멘토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창업동아리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1.02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아리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 능력 등을 갖춘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는 ‘산 경험’(lived experience)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을 오래하면 할수록 더욱 더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청년창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창업동아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모형 2]를 통해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창업 계획 요인을 살펴본 결과, 4년제 학생들이 창업할 확률이 전문대 학생들에 비해 1.806배 높았으며, 남학생이 창업할 확률이 여학생에 비해 1.797배 더 높았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창업동아리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창업 확률이 더 높아졌다.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창업계획 확률은 1.64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전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상시적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창업동아리에 대한 외부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학생들의 창업계획 수립에는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투자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창업성공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더욱 커져 창업계획 확률이 1.55배 더 낮아졌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생태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단순히 외부 투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창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정책 제언

##### □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 1) 청년창업 지원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고용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청년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더구나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제한된 사업 대상을 두고 중복 지원을 하고 있어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나 핀란드 등 창업선진국에서는 모두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동아리 구축 단계, 창업보육 단계, 창업보육 이후 단계 등 창업 단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를 모색해야 한다. 동 법률에는 청년들의 지식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방안, 창업동아리에 관한 규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창업교육의 정규 교과 과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2) 우수한 창업아이템의 발굴 및 제공

창업관심자 중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창업활동에 나설 확률이 7.271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에 관심을 둔 학생들이 실질적 지식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보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대기업이나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이 보유한 미사용 특허를 정부가 중재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핀란드의 경우 글로벌 기업인 노키아가 앞장서서 청년이나 중소기업

업들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특허나 각종 연구개발 콘셉트들을 공개하고 있다. 미사용 지적재산을 미래세대나 중소기업과 공유하려는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노키아가 주최한 게임개발대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청년창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나 각종 콘셉트들을 정부가 중재하거나 또는 대기업 자체의 공개발표회 등을 통해 유사 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면 청년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 3) 전국적인 창업동아리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아리 지도교수는 물론이고 학내외 전문가, 경험 있는 창업가, 투자자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멘토링과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청년창업에서 ‘멘토링 필요성’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창업을 계획할 확률은 1.3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창업 멘토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 창업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수, 대학 내 BI(창업보육) 매니저 등 창업 전문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의 과학기술자, 민간 창업 전문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멘토 자원을 전국 수준에서 네트워킹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멘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야별로 외과수술적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멘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 4) 다학제적 창업동아리 조직 지원

창업동아리 활동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창업이 단순히 아이템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의 집단적 창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종 분야에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아리가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창업동아리의 구성 자체를 처음부터 학제 간 융합동아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창업동아리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초기 상태이므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매개로 다학제적 융합동아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융합동아리의 조직 성과를 사업성과 및 평가에 반영시킴으로써 다학제적 창업동아리 조직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 5)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 지원 기금 조성

청년 지식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창업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입각해 초기 투자기금 지원 방안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창업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 투자의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이에 비례해 학생들의 창업 의지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민간 자본과 매칭하여 학생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태펀드를 별도로 조성해 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학생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자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직접 모으는 클라우드 펀딩 방식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 대학 차원의 정책과제

##### 1) 대학 창업동아리 조직의 전국적 확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대학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학에만 창업동아리가 조직화되어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대학 창업동아리의 전국적 조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창업동아리의 전국적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만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대학 내 각종 조직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취업지원 위주의 패러다임을 창업을 포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에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설정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체 응답자의 11.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창업을 미래의 진로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미래 진로지도를 위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제도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이 중요하다. 공간이 없이는 학생들이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주도하는 창업동아리 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학생창업 전용공간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지식을 학습하고 창조성을 길러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용공간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 또는 재정 지원 및 학교평가 등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창업의 활성화는 학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당국이 실질적으로 창업동아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3) 대학 내 학생 창업동아리 멘토링 시스템 구축

학생 창업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 제공 등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 창업동아리를 조직하고 이에 대한 멘토링을 강화하려면, 결국 대학교수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는 멘토교수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 지원 사업

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멘토교수들의 활동을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교수업적 평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가 협력하여 교수들의 창업동아리 지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제1장 | 서론

박 동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청년고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다. 세계은행은 2005년에서 2020년까지의 15년간 OECD 국가들이 2005년 기준 시점의 고용률을 유지하려면 약 6억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World Bank, 2012). 그러나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어두운 전망 속에서도 세계 각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새로운 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가 반도체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 침체를 겪으면서 애플, 페이스북

#### 4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중심의 신산업 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다. 핀란드 등 북유럽 각국에서도 청년 창업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조밀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년 고용문제가 이미 오래전에 국가적 어젠다로 부상한 상태이다. 2013년에도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4월에는 청년고용률이 39.0%를 기록해 1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통계청, 2013). 청년고용 문제는 이제 우리 사회가 긴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현안과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새 정부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2013. 2. 14)에서 대통령 당선인은 “청년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만이 아니라 창업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 및 멘토링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대안 모색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의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설정되는 등 실질적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실천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각 부처에서도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년창업 지원 정책이 고용률 제고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청년창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청년들이 지식창업을 보다 용이하고 현실적인 도전과제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바로 대학 내 창업동아리이다. 창업동

아리는 학생들이 창업이라는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과제를 혼자 힘  
이 아니라 여러 선후배 및 동료 학생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풀어 나  
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통로라고 말할 수 있다.

창업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지식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동  
아리를 중심으로 창업에 대한 이론교육만이 아니라 실전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창업에 대한 ‘생생한 체험’(Lived Experience)을 하도록 지  
원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동료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 나가는 요령을 익혀  
나가야만 한다.

현재 글로벌 창업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 등은 모두 20대  
에 창업을 하여 오늘날 수백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세계적 기  
업으로 성장하였다. 이들 글로벌 창업리더의 주변에는 동일한 문제의  
식을 공유한 동료들이 함께 하고 있다. 즉 이들 개개인이 단순히 천재  
였기 때문에 청년창업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의 소통과 협력  
을 통해 ‘집합적 창조성’(collective creativity)을 발휘했기 때문에 오늘  
날과 같은 성공이 가능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창업생태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  
태에서 청년들이 창업에 따르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창업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창  
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다양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창업성공률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  
에서 청년층의 지식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동아리 활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 창업동아리 실태에 대한 분석 및 국내외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러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지식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동아리는 서로 다른 전공과 경험을 보유한 다양한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 핀란드의 알토대학에서는 ‘알토스’라는 학내 창업동아리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MIT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주도하는 각종 창업동아리들이 존재한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는 청년창업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창업자를 위한 공간이 매우 저렴한 비용에 제공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창업선진국들에서는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창업자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멘토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 지원은 이론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교수가 중심이 되어 시행하는 이론교육만으로는 학생들의 창조성을 발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어떻게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협력적으로 창업활동에 종사하는 창업동아리 시스템을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은 물론 창업동아리 조직 활동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이러

한 문제점들을 여하히 조기에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대학 창업 동아리를 중심으로 지식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멘토링 강화 방안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다.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청년 창업동아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창업동아리는 청년창업이 소수 천재들의 두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창업동아리가 무엇이며,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집합적 창조성’(collective creativity) 발양을 위한 용광로로서의 창업동아리 관련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정부의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개괄적인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동아리 지원 현황, 대학생 대상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학 창업동아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국의 창업동아리 참여자 및 창업관심자 900명을 대상으로

## 8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창업동아리 활동 실태를 살펴보았다. 동시에 창업동아리 관계자에 대해서는 집중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업동아리 활동이 청년 창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외 창업동아리 우수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과 핀란드의 2개 국가를 중심으로 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학생 창업 동아리 전용공간을 보유한 대학 사례를 발굴하여 구체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제6장에서는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앞에서의 논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창업동아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정부 차원의 과제와 대학 차원의 과제,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대학 내 학생 주도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의 확보 방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교수 및 BI(창업보육센터) 매니저 등의 청년창업 멘토링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 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창업동아리 및 집합적 창조성 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청년 창업동아리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둘째, 창업동아리 참여자 및 창업관심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창업동

아리 관련자 집중면접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대학 창업동아리 참여자 및 창업관심자 900명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자와 창업에 관심은 있으나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 등 두 집단 사이의 창업동아리에 대한 인식 및 지식창업에 대한 태도의 차이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더불어 창업동아리 관련자들을 면접하여 창업동아리 활동의 장애요인 등 설문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보완하였다.

셋째, 창업동아리 멘토교수나 BI 매니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는 연구방향에 대한 자문, 설문지 및 정책 제안 등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창업동아리 멘토교수 및 BI 매니저 등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행하였다.

지난 4월 25일~26일까지 2일간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를 현장방문하여 동아리 학생 13명, 멘토교수 등 10여 명과 현장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창업동아리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토론을 실시하였다.

넷째, 창업선진국의 학생 창업동아리 우수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 사례는 현지에 체류 중인 공동연구자를 활용하여 미국 대학의 창업동아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핀란드 사례는 2010년 방문 시 수집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였다.



## 제2장

# 청년 창업동아리 관련 이론적 논의

제1절 창업 및 창조성 관련 선행연구 흐름

제2절 집합적 창조성과 창업동아리

제3절 국내의 창업동아리 실태 및  
청년 지식창업



## 제2장 | 청년 창업동아리 관련 이론적 논의

박 동

### 제1절 창업 및 창조성 관련 선행연구 흐름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난제로 부상하면서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20세에 창업을 하였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21세,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는 20세, 구글의 래리 페이지는 25세에 창업에 성공하여 오늘날 수백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실리콘밸리의 신규 창업 성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연령은 더욱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ww.businessinsider.com).

인터넷과 ICT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청년들의 창조성과 열정에 기초한 지식창업<sup>1)</sup>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청년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혁신생태계를 갖추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오늘날 전 세계 혁신의 진원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 이 연구에서 지식창업은 IT 융합 분야의 콘텐츠, 소프트웨어, 제조업 융합 분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으로 제한하고 전통적 제조업 또는 자영업 창업은 제외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지식창업 분야에 대해서는 박동 외(2010: 12~13) 참조.

(이종선, 2004).

이뿐만 아니라 북유럽의 핀란드에서는 노키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로비오, 슈퍼셀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창업생태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헬싱키에 소재한 알토대학에서는 알토스(Aaltoes)라는 유럽 최대의 학생 주도 창업동아리가 청년들의 창업정신을 고취시키고 실전창업으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알토스는 미국 ‘스탠포드 기술 벤처 프로그램’(STVP)과 주기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www.aaltoes.com](http://www.aaltoes.com)). 알토스는 알토대학이 설립된 2010년까지만해도 세계적 청년창업 모델로 불리기에 너무나 초라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4년이 지난 지금 알토스는 청년창업의 세계적 롤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청년 창업동아리의 성공사례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구현 가능할 것인가? 뛰어난 청년 몇 명만 제대로 키우면 당면한 청년고용 문제의 돌파구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비롯한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인해 조성된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은 청년창업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측면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창업은 단순히 조직을 경영하는 문제가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의 총체적 산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 지식의 폭증으로 인해 시장에서 유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창조적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며 팀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창업과 관련하여 선구자적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슈페터는 경제발전이 궁극적으로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하기보다는 혁신적

창업가에 의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에 기반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창조적 파괴를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정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생산함수 자체를 바꾸려는 창업정신(entrepreneurship)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chumpeter, 1950).

슈페터의 논의 이후 혁신이론이 발전하게 되는데, 혁신이론가들은 처음부터 모험적 마인드를 가진 특출하고 창조적인 개인 창업가의 역할에 주목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 연구는 주로 청년 개개인의 역량과 기회 포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예를 들어 청년창업에서 문화적 요인을 강조하는 포날은 창업의 구체적 의도를 가진 잠재적 창업가가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여 실질적인 창업에 이르게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Fornahl, 2003).

또한 창조성에 대한 인지심리학적 접근론자들의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롭고 유용한’(novel and useful) 아이디어를 파생시키는 개인의 심리적 과정에 주목한다. 와드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창업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창업자 개개인의 심리적 작용의 산물로 파생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개인들이 보유한 지식이 창조적 새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설적 역할을 한다면서 기본적 인지과정의 조심스러운 적용을 통해 단순한 지식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고 기업가적 창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Ward, 2003).

바이그레브의 경우에도 창업자적 특성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Bygrave, 2004: 5). 그는 창업

자의 개인적 특성이 여타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념, 높은 성취욕, 내재적 통제위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위험 부담 능력, 교육과 경험 등에서 특출한 역량을 발휘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히 가족 부양의 부담이 없는 청년기에 창업이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슈페터 이후 경제발전에서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혁신성장 이론가들은 이후 연구개발에 기초한 지식과 기술의 창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충 등을 강조하는 ‘신성장 모델’로 발전해 나가게 된다(Romer, 1994). 이후 혁신성장 논의는 창조성(creativity)을 뛰어난 개인의 두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개인의 창조성을 어떻게 발양할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그러나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점차 개인적 우연성보다는 혁신행위가 일어나는 조직, 문화, 환경, 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조성이 특출한 개개인의 속성이라기보다 집합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된다. 즉 ‘창조성은 예외적으로 특출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단순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이 제기되기에 이른다(Rooney, 2010: 180).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는 창조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 창조성(individual creativity)은 지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새로운 창조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집합적 창조성’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Parjanen, 2012).

## 제2절 집합적 창조성과 창업동아리

최근 창조성 논의는 집합적 창조성 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집합적 창조성은 ‘2명 이상의 사람들이 새로운 혁신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나 상품, 서비스 등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Parjanen, 2012). 아래의 <표 2-1>은 집합적 창조성과 관련한 논의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표 2-1> 집합적 창조성과 관련된 국외 연구 현황

연구자	분석 방법	분석 결과
우드만 외 (1993)	이론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성은 개별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며, 창조적 과정이 발생하는 상황의 맥락 검토가 중요함.</li> <li>- 다양한 사회적 맥락적 영향들이 집단이나 조직 수준에서의 창조성에 영향을 미침.</li> <li>- 이러한 영향들이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성과를 제약하거나 촉진함.</li> </ul>
올드햄과 커밍스(1996)	기업체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고용자들은 적합한 창조 관련 특성을 보유하고, 복잡하고 도전적인 일에 종사할 때 가장 창조적인 작품을 산출함.</li> <li>- 또한 협조적이고 비통제적인 방식으로 감독됐을 때 창조적 활동을 함.</li> </ul>
드라진 외 (1999)	이론적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성에 있어서는 집단행동에서의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공통의 공유된 의미 또는 패턴을 구축하는 일이 중요함.</li> <li>-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 상호작용 과정이 중요함.</li> </ul>
바라드와지와 매논 (2000)	산업체 메일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수준의 조직적 창조성 메커니즘은 저수준의 조직적 개인적 창조성 메커니즘보다 더 나은 혁신 성과를 창출함.</li> </ul>

<표 계속>

18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연구자	분석 방법	분석 결과
타가르 (2002)	집단행동 성과 분석	- 집합적 상호작용의 일부로 출현하는 팀 창조성 관련 과정이 중요함. - 이것이 없이는 고도로 창조적인 개인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도 효과가 없음.
하르가돈 외(2006)	현장조사	- 네 종류의 상호 관련된 활동들이 집합적 창조성을 조장함(도움요청, 도움주기, 숙려적 재구조화, 보강).
비솔라 외(2011)	산업체 현장조사	- 창조성은 창조적 천재에 대한 것이 아님. - 개인의 창조적 능력과 팀의 역동성, 그리고 조직적 해결책들은 집합적 창조 성과를 산출하는 데 서로 상호작용을 함.

자료: Parjanen(2012)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현재까지 집합적 창조성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기업이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피고용자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집합적 창조성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우드만 등은 개인에 초점을 맞춰서는 창조성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창조적 과정이 발생하는 상황의 맥락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사회맥락적 영향들이 집단이나 조직 수준에서의 창조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개인이나 집단의 창조적 성과를 제약 또는 촉진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Woodman, Sawyer and Griffin, 1993).

또한 올드햄과 커밍스는 기업체 사례 분석을 통해 피고용자들이 적절한 창조적 역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복잡하고 도전적인 일에 종사할 경우 가장 창조적인 작품을 산출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특히 경영 차원에서의 관료적 통제보다는 협조적이고 비통제적 방식으

로 감독되었을 때 피고용자들이 가장 창조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Oldham and Cummings, 1996).

드라진 등은 창조성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집단행동에서의 위기순간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공통의 공유된 의미 또는 패턴 구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의 의미 또는 패턴 구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이 필요하다(Drazin, Glynn, and Kazanjian, 1999).

바라드와지와 메논은 조직적 창조성 메커니즘과 개인적 창조성 메커니즘을 구분한 후 고수준의 조직적 창조성 메커니즘은 저수준의 조직적·개인적 창조성 메커니즘보다 더 나은 혁신성과를 창출한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이들은 조직이 창의적인 사람을 고용할 뿐만 아니라 창조성을 고취할 수 있는 조직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Bharadwaj and Menon, 2000).

타가르는 팀의 맥락에서 창조적 성과와 효과적 집단 결과물을 위해 필요한 특정한 행위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는 5~6명으로 구성된 집단 내에서 활동하는 약 500여 명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그는 개별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 창조성과 집단적 능력을 위한 팀 맥락 내에서의 개인적 다양성과 특정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특히 효과적인 집단은 개인들이 창조성을 위한 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적절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집합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출현하는 팀 창조성 관련 과정이 중요하며, 이것이 없이는 고도로 창의적인 개인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도 별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다(Taggar, 2002).

하르가돈 등은 창조적 ‘문제해결의 위치’가 개인으로부터 집합적 상호작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집합적 창조성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각종 경험조사를 통해 일부의 창조적 해결책이 개인적 통찰력의 산물일 수 있지만 여타의 많은 것들은 집합적 과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 같은 집합적 창조성은 창조과정의 특성에 있어서 질적 전환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도움요청(help seeking), 도움주기(help giving), 숙려적 재구조화(reflective reframing), 그리고 보강(reinforcing) 등 네 가지 유형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집합적 창조성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Hargadon and Bechky, 2006).

비솔라 등은 문제의 복잡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창조적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의 창조성 이론들 중에는 집합적 창조성의 개발을 설명하는 포괄적 이론이 부재하며, 경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창조성은 창조적 천재에 대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창조적 능력과 팀의 역동성, 그리고 조직적 해결책들은 집합적 창조성과를 산출하는 데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역설하였다(Bissola and Imperatori, 2011).

최근 파르자넨은 대부분의 창조성 연구들이 여전히 창조성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면서 조직 내에서 집합적 측면의 창조성을 살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녀는 집합적 창조성의 특징 중 하나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이 누구에게서 비롯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러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것이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 자신만의 것이라고 주

장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집합적 창조성은 여러 개인들의 협력과 헌신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특정한 개인의 헌신의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Parjanen, 2012).

이러한 집합적 창조성이 왜 중요한가? 집합적 창조성과 창업동아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창업동아리가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뛰어난 소수의 개인보다는 역량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지식, 기술, 경험, 인생관, 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학생들 사이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더욱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발양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 창업동아리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2명 이상의 학생들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무엇보다도 창업동아리는 동료, 선후배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무엇인가 새롭고 유용한 것을 창출하는 문제는 점차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래리 페이지 등 지식기술 분야 세계적 기업가들의 경우 대부분 동료들과의 공동창업을 통해 집합적 창조성을 극대화

2)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동아리를 “대학생들에게 창업마인드를 확산시키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취시켜 창의성과 개척정신을 갖춘 미래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국 각 대학총장(학장)이 승인한 대학 내의 창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로 규정하고 있다(www.smba.go.kr).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창업동아리라는 공동체를 통해 서로 다른 전공과 경험, 세계관을 보유한 청년들이 계획적 또는 우연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융합함으로써 개인의 힘만으로는 하기 어려운 새로운 지식과 아이디어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창업동아리는 집합적 창조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새로운 것을 가미해 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창업동아리가 이러한 공동의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그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창업동아리에 대한 참여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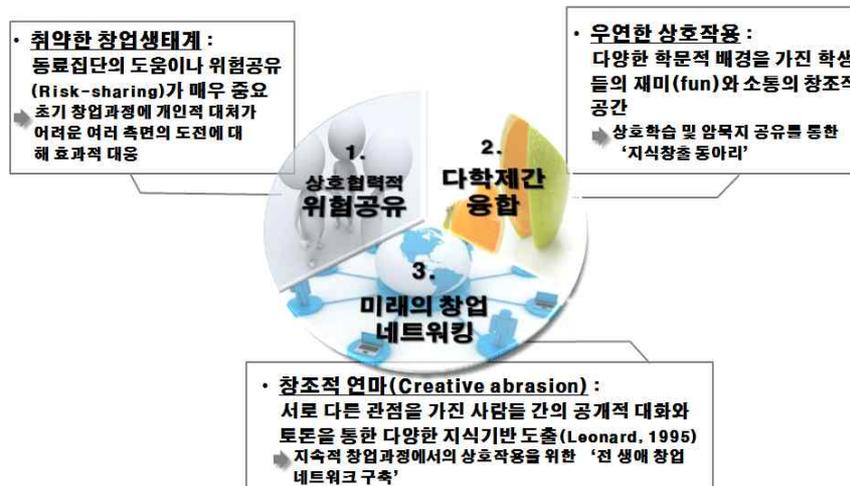
그렇다면 창업동아리라는 조직을 통해 어떻게 창업활동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첫째, 창업동아리라는 조직활동을 통해 초기 창업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여러 측면의 도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창업은 단순히 하나의 문제해결 과정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복잡한 작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개인이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창업동아리 참여 학생들의 상호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면 학생들이 창업과정을 통해 좌절보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창업생태계가 매우 취약한 조건속에서는 이러한 동료집단의 도움이나 위험공유(risk-sharing)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창업동아리라는 조직 내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사이의 다학제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광범위한 확산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동아리 내에서 각종 공식 회의 및 조직활동 등을 통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만남 등을 통한 ‘우연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림 2-1] 창업동아리 조직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이런 의미에서 창업동아리는 학생들의 재미(fun)를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상호 이질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조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창업동아리를 통해 참여 학생 개개인이 보유한 지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상호학습하고 암묵지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식창출 동아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을 통해 전 생애에 걸쳐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창업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과정이 아니라 전 생애 동안 지속성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창업동아리 활동은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매우 중요한 자양분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창조경제 시대에 새로운 아이디어는 상이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산물은 다학제, 다전공 사이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지식경계를 횡단할 때 새로운 지식이 더욱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Carlile, 2002). 이러한 이질적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공유, 지식흡수, 지식이전, 지식개발 등 다양한 과정들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레오나드(Leonard, 1995)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공개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지식기반이 도출되는 과정을 ‘창조적 연마’(creative abrasion)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창업동아리를 통해서 혼자 힘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창조적 연마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 학생들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과 경험은 창업동아리 활동에 있어 새로운 잠재력을 제공해 준다. 새로운 활동이 확립되는 과정은 어떤 의미에서 이전에는 서로 달랐던 아이디어의 새로운 사용 또는 조합 방식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조적 아이디어나 상품은 새롭고, 독창적이며, 잠재적으로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적 산물은 대부분 몇몇 천재들의 두뇌에서 순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창조

성'(organizational creativity)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Amabile, 1996).

이를 창업동아리라는 조직에 적용해 보면 창업동아리 내에서의 조직적 창조성은 값어치 있고 유용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 절차, 과정을 동아리 내에서 여러 학생들이 협력하여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내외의 동료, 선후배로 구성된 학생 창업동아리는 시장 경쟁에 직접 노출된 기업이나 여타 사회조직과 다른 장점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창업동아리 내에서는 '조직적 침묵'(organizational silence)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직적 침묵은 정부나 기업, 각종 사회조직들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조직적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Morrison and Milliken, 2000). 특정 기업조직 내에서 상사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경우 부하 직원들이 그것에 대해 어떠한 불만이나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방임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누군가는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침묵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적 침묵은 혁신을 저해하고 중국에는 거대조직도 붕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학생 창업동아리는 위계성보다는 상호 평등성에 기초하고, 감시·감독보다는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조직적 침묵과 같은 병리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집합적 창조성은 위계나 감시·감독 속에서는 발양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 제3절 국내의 창업동아리 실태 및 청년 지식창업

2013년 7월 초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학생 창업동아리는 전국 대학 466개<sup>3)</sup> 중 40.8%인 190개 대학에 1,833개의 동아리가 설립되어 있으며, 그 회원 수는 2만 2,463명(창업동아리 당 평균 12.2명)에 달한다(아래 <표 2-2> 참조). 최근 청년고용 문제가 심화되면서 창업동아리 조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의 대학에는 창업동아리가 조직화되지 않는 등 창업동아리 조직화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창업동아리 성공사례들이 발굴되고 있으나 아직 견실한 기업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sup>4)</sup>

<표 2-2> 학교유형별 창업동아리 전문분야 현황

구분	정보통신	전기전자	기계재료	공예디자인	생명식품	화학섬유	환경에너지	기타(전문야)	전체
대학교(127개)	503	199	137	116	92	61	34	305	1,447
전문대학(63개)	69	44	61	68	37	8	5	94	386
전체(190개)	572	243	198	184	129	69	39	399	1,833

자료: 창업진흥원(2013)

4년제 대학에는 전체 190개 중 약 2/3인 127개의 창업동아리가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 1/3이 전문대학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분야별

3) 여기서 대학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대학), 각종대학(대학), 대학원대학을 포함하며,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기능대학, 사이버대학(전문), 각종대학(전문)을 포함한다(창업진흥원, 2013).

4) 2013년 7월 초 기준으로 우리나라 학생창업기업수는 전국 466개 대학 중 377개로 전체 학교당 평균 0.8개에 머물고 있다(창업진흥원, 2013). 이는 알토대학에서만 학생들이 매년 평균 40여 개의 신생기업을 창출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다(www.aaltoes.com).

로 살펴보면 전체 1,833개의 창업동아리 중 정보통신 분야가 572개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타(전분야) 399개(21.8%), 전기전자 243개(13.3%), 기계재료 198개(10.8%), 공예디자인 184개(10.0%) 순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창업동아리를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려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중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이하 SSN)는 2012년 4월 23일 발족하였는데, 현재까지 국내 최대의 창업동아리 연합 조직이다. 동 조직은 학생들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학생창업자의 육성과 학생창업을 통한 위대한 기업의 탄생 그리고 학생 창업문화의 선도를 통해 풍요롭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2013년 6월 현재 6개 지역, 131개의 대학, 98개의 동아리(약 1,500명)가 가입되어 있다([www.studentstartup.or.kr/](http://www.studentstartup.or.kr/)).

SSN은 창업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들과 창업동아리 간의 네트워킹을 활발히 하고, 워크숍, 컨퍼런스, 멘토링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SSN은 공신력 있는 학생자치기관으로서 학교 밖의 사회와 활발히 교류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

SSN은 2012년 5월 공식출범과 함께 ‘2012 대한민국 학생창업 페스티벌’을 교육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이후 제1회 디자인 창업캠프, 제1회 학생창업네트워킹 파티, 제13회 대한민국 대학생 벤처창업 경진대회 등을 주관하였다. SSN의 참여는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기획, 운영 등도 맡아 매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교육부 2012c, <http://www.studentstartup.or.kr/>).

SSN이 교육부와의 협조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2013년 5월 24

일에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 연합’(이하 NEST)이 발족식을 갖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NEST는 2013년 초 창업진흥원이 주관한 ‘대학생 전국창업동아리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198개 대학생 창업동아리, 총 74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이들은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후원으로 각 지역에서의 모임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업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킹을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NEST는 특히 전국 단위 모임과 해외 창업동아리와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업인프라를 형성해 가면서 SSN과 함께 전국 대학생 창업동아리 연합의 두 축으로서 대학의 창업열기를 드높일 것으로 기대된다(<http://www.kised.or.kr/>).

SSN이나 NEST 등 전국적 연합조직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각 학교 별로 창업동아리가 산재한 상태여서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 네트워크 속에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캠퍼스를 넘어서는 창조적 연마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청년 창업동아리가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국외의 청년창업 연구들이 집합적 창조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창업교육의 필요성,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등 청년창업의 범업을 위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어왔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이 아직도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창업동아리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창업동아리가 연구의 대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가 창업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본격적 창업이 이루어지기 이전 단계에 대한 연구는 경험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활성화되기 어려운 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국외 연구들의 경우에도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자신들의 창조성을 어떻게 발휘해 나가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국내 연구들의 경우에도 창업동아리를 집중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청년창업과 관련한 연구로는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등이 있다.

먼저, 김주미 외(2008)는 중소기업청이 시행하고 있는 5개 창업대학원 사례를 중심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대학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창업대학원 대상의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창업동아리를 통한 학생들의 실질적 창업교육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박동 외(2010)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청년층의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대학생, 대학원생 등 청년층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식기술 창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청년창업의 현황, 정부의 청년창업 정책의 문제점과 평가, 청년창업 실태 분석, 국내외의 청년창업 성공사례 분석, 정책 제언 등을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창업동아리에 대해서는 부분적 언급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양현봉 외(2011)는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안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청년창업 생태계의 개념과 현황, 청년창업 정책의 추진 실태와 문제점, 청년창업 기업의 행태 분석, 영국과 일본의 청년창업 지원 정책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에도 청년창업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윤준 외(2012)는 우리나라 창업정신 및 청년창업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핵심 영향 요인 도출과 정책지원의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고학력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창업정신 확산 및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sup>5)</sup> 그러나 동 연구는 실전적 창업정신 고취에서 창업동아리가 갖는 구체적 의미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윤준(2012)은 창업동아리, 실험실 창업, 대학기술지주회사 등 다양한 창업통로의 활성화 및 창업교육과 투자, 멘토링 연계 강화 등을 통해 대학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동 연구는 대학창업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창업동아리를 통한 구체적 창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 지식창업의 가장 유력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청년 창업동아리에 대한 실태 분석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청년 지식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즉, 단순한 이론교육이 아니라 창업동아리를 경유한 실전교육을 통해 지식창

5) 우리나라의 다수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창업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영어 ‘entrepreneurship’은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기업가 정신으로 한정하면 용어의 원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창업정신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업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합적 창조성을 위한 학생 창업동아리의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아래의 [그림 2-2]는 학생 창업동아리를 둘러싼 다양한 지원 체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각종 지원 체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학생 창업동아리는 단순히 학생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 아니므로 다양한 지원 시스템과 연계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등 하드웨어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창업동아리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창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하는 학생 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학생 창업동아리 내 조직문화, 리더십의 구축, 전략 등이 중요하다. 동아리 활동의 성과는 창조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질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협력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것이다. 공식/비공식의 지식공유, 아이디어 개발 및 상호학습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창조적 목표설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 혁신창업에 강조를 두는 전략 등을 실행해야 지식창업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다.

[그림 2-2] 집합적 창조성을 위한 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체계



또한 여기서는 대학/산업체 등의 창업동아리에 대한 창업아이템 제공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창업아이템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노키아가 학생들에게 활용되지 않은 특허를 개방함으로써 창업아이템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산업체 인사들과의 공식/비공식 모임과 각종 경진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아이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다음으로 창업동아리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인 각종 경진대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MIT 대학에서는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빠른 자기소개 경진대회, 사업개요 경진대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전

창업과 관련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상당액의 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전창업을 돕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경진대회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멘토링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창업교육에 대한 사항이다. 창업동아리는 교수나 과학기술인, 각종 창업전문가, 산업체 인사들이 학생 개개인을 상대로 할 때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다. 공통 관심사를 공유한 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책의 성과 도출도 더욱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 제3장

# 정부의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정부의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  
현황

제2절 정부의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의  
문제점



## 제3장 | 정부의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현황과 문제점

김수진

정부의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은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대학 및 사회 전반의 창업 분위기를 고취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체 청년창업 지원 사업 규모에 비해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교육부의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이하 LINC 사업), 서울시의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가 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대표적인 창업경진대회로는 중소기업청의 실전 창업리그, 교육부의 U-Startup Contest,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가 있다. 멘토링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부의 네트워크 파티형 멘토링(디딤돌)과 미래창조과학부의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의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 및 각종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표 3-1> 참조).

〈표 3-1〉 정부의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 운영 현황

지원 사업	지원 부처	창업동아리 지원 내용(활동)	규모 (금액, 인원)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아이템 개발비, 창업준비공간, 기자재, 멘토링 등	사업 전체 규모: 250억 원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 지원	69.5억 원 (30개 대학)
실전창업리그		시제품 제작비, 창업멘토링, 상장 및 상금 제공	17억 원, 30개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교육부	기업체 수요 연계 동아리 발굴 육성, 창업 지원금, 창업준비공간 등	사업 전체 규모: 2,334억 원
U(University)-Startup Contest		상금 및 기업 전시기회 제공	시상규모: 8팀에 19백만 원
네트워크 파티형 멘토링(디딤돌)		멘토링 프로그램	50개팀
벤처1세대 활용 및 제기 프로그램	미래창조 과학부	멘토링 프로그램, 실패 벤처인의 공동창업, 포럼운영 등	13억 원
전국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산업통상 자원부	창업 지원금, 해외 탐방, 멘토링 제공	총 상금 3천만 원, 9개팀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서울시 (서울산업통 상진흥원)	공동창업공간, 사무집기, 최대 100만 원의 창업아이템 개발비	192억 93백만 원(1,300개팀)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강원도청	창업아이템 개발 등 활동비 일부	40백만 원 (창업동아리 20개 내외)
대학벤처동아리 육성 지원	전라남도청	아이템 개발, 컨설팅, 시제품 제작·판매 등	160백만 원 (9개 대학 62개 동아리)

자료: 중소기업청(2013b) 및 본문

## 제1절 정부의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 현황

### 1.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청은 2011년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 ‘창업선도대학’ 선정을 통해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성공적인 창업 준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8개의 ‘창업선도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공간, 인력, 장비 등 우수한 창업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가 보유한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기획, 시제품 제작, 멘토링,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표 3-2〉 창업선도대학 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대상	목표	지원 내용
1. 대학생 창업교육	창업 강좌	재학생	창업정신 함양, 창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정규강좌(전공/교양) 운영
	창업 동아리	재학생	예비창업자원 발굴	아이템 개발 자금, 창업 준비 공간, 기자재, 멘토링 등 지원
2. 일반인 창업교육 (기술창업아카데미)		일반인	창업교육	야간 혹은 주말 교육과 함께 사업모델 개발비 연계 지원
3. 창업실행지원		예비기술창업자	창업기업 배출	최대 5,000만원 지원. 창업준비공간, 기자재, 멘토링 등 대학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화 과정 전반을 지원
4. 성장촉진지원		선도대학 지원으로 창업한 기업들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연계지원	창업보육센터(BI)에 입주시켜 기술, 자금, 경영지원

자료: <http://sundo.kised.or.kr/>

총 사업 규모는 250억 원(500개 내외 과제)이며, 지원 분야에 따라 최대 5천만 원 한도로 10개월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크게 사업화 지원과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지원에서 창업 동아리 발굴 및 육성이 이루어진다. 대학별 최소 7개 이상(신규 3개 이상)의 창업동아리를 선발하여 아이템 개발을 위한 자금, 창업 준비 공간, 기자재,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예비창업자원을 발굴한다. 또한 재학생 대상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동아리에는 창업컨설팅 지원 및 학생벤처팀 입주 시 가점 부여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 (<표 3-2>, [그림 3-1] 참고).

[그림 3-1] 창업동아리 운영 체계(예시)

Step1	Step2	Step3	Step4
창업동아리 선정	창업 실무 멘토링	우수 아이템 사업화	창업 및 사업화 연계
경진대회(4~5월)	창업강좌, 캠프, 모의 창업 운영	(1) 창업동아리 성과발표회 (11월) (2) 사업화 지원	(1) 정부 지원 사업 연계, 엔젤 기업 연계 (2) 홍보/마케팅 자금 지원 알선

자료: 경일대학교 창업 지원단 홈페이지(<http://bridge.kiu.ac.kr>)

동 사업에서는 사업 프로그램을 일반형과 입소형으로 구분해 운영하는데, 일반형 창업선도대학에는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활동, 마케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입소형 창업선도대학에는 이에 더하여 창업활동, 입소공간, 전용교육, 책임 멘토링까지 지원한다. 일반형 대학은 7~30개 내외의 과제에 대해, 입소형 대학은 40~43개 내외의 과제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청, 2013a).

입소형 창업사업화 지원 창업선도대학의 창업 단계별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예비창업자 단계인 창업동아리에서 시작하여 창업안정화 단계까지 체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3> 참조). 그러나 각각의 지원 규모를 보면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원 규모가 커지며, 초기 단계 창업동아리에 대해서는 공간 규모나 지원 기간 등에서 더 작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창업동아리에 대해 단계별로 연계하여 지원하기보다 각 단계별로 해당 대상을 별개로 모집하여 당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에게 우선 지원을 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학생 창업동아리 대상의 창업 지원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 3-3>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 예시(입소형 창업 지원 대학-연세대)

단계	1단계 예비창업자 단계	2단계 창업 초기/성장 단계	3단계 창업 안정/재도약 단계
대상	재학생 (창업동아리 우대)	예비창업자 및 창업 2년 미만 기업	IPO를 목적으로 한 본격적 성장 단계 기업
모집	2회/년	-	-
입주 기간	6개월, 기간 연장 가능(최대 2년 6개월 입주 가능)	기본 2년(최대 5년)	최대 5년
입주 공간	공학원 내 CELL 구성(38.88㎡)	약 53~300㎡	약 400㎡
지원 사항	창업 프로그램, 창업 공간·사무비품 무료 지원	- 1단계 초기 창업 지원, 사업 타당성 검토 - 2단계 사업화 지원, 경 영 컨설팅 지원 - 3단계 시설·장비·기술· 경영·교육·자금·산학연 계 지원	투자유치·기술이전· 기업 M&A/M&A/free Board/IPO 지원
목적	-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 초기 창업 지원 프로그 램 운영	- 초기 단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학교벤처포럼/학교벤처 네트워크 연계	- 투자유치, 기술이전 등 을 통한 창업기업의 안정화 지원

자료: 연세대학교 창업지원단 홈페이지(<http://venture.yonsei.ac.kr/>)

## 2.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사업을 통하여 창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총 예산 69.5억 원으로 30개 대학에 창업강좌 및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해당 대학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강좌(4개 이상)를 제공하고, 창업동아리는 1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동 사업에서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평일 저녁, 주말,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30시간 이상의 창업강좌도 함께 운영한다(<http://www.changupnet.go.kr>; 중소기업청, 2013b).

대학생 창업아카데미의 최근 3년간 연도별 지원 성과로는 창업강좌가 2010년에 115개였던 것이 2012년도에는 360개의 강좌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해당 교육인원 역시 7,543명에서 19,015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창업동아리는 2010년에 총 297개에 불과하였지만 2012년 현재 지원받는 동아리는 834개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표 3-4〉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연도별 지원 성과(2010~2012)

구 분	2010	2011	2012	합 계
창업강좌(개)	115	241	360	716
교육인원(명)	7,543	15,069	19,015	41,627
창업동아리(개)	297	540	834	1,671

자료: 중소기업청(2013c)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이 연도별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창업 강좌 수강 및 창업동아리 활동이 그 다음 단계인 창업보육센터(BI)로

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료생의 창업 유인효과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몰량 중심의 지원 증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대학생들의 창업을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중소기업청, 2013c).

### 3. 실전창업리그

‘실전창업리그’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이다.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예비)자를 발굴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데, 총 17억 원 규모로 30개팀 내외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비, 창업멘토링, 상장 및 상금 등을 제공한다(<표 3-5> 참조).

〈표 3-5〉 실전창업리그 지원 내용

구분	지원 내용
자금	시제품 제작비 지원(1천만 원 한도)
창업멘토링	창업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 점검 및 사업화 로드맵, 사업계획 타당성 등에 대한 멘토링 및 피드백(월 1~2회)
상장 및 상금	운영기관별 사업 완료 시점에 참가자의 최종 시제품, 경영능력, 기술·사업성 등을 심사하여 시상(최고 2천만 원)
기타	엔젤투자 기회 제공, 입상 시제품 전시회 등

자료: <https://startbiz.changupnet.go.kr/>

2013년 실전창업리그 사업에서는 선발된 창업(예비)자에게 실전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6개 운영기관(VC, venture capital)을 선발하였다. 멘토링 프로그램 및 전문 멘토 풀을 보유하고 있거나, (예

비)창업자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투자기관,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보유 기관, 그리고 창업경진대회 운영 경험 보유 기관 중에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의 분야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 게임 등 IT가 중심이며 제조업 및 전 산업 분야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각 운영기관은 각각 독립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는 1개의 대회만 선택 가능하다. 참가신청 접수에서부터 서류평가, 멘토링 평가, 멘토링 및 시제품 제작비 지원 등 전반적인 대회 진행은 각 운영기관에서 실시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고, 대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업의 지원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ttps://startbiz.changupnet.go.kr>).

#### 4. 산학협력선도대학·전문대학 육성 사업(LINC 사업)

교육부는 지역대학과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술개발, 취·창업 교육 내실화 등 지역맞춤형 산학협력 모델을 창출·확산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전문대학(LINC) 육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중 하나가 창업동아리 활성화이다.

LINC 사업은 2012년에 대학 1,700억 원, 전문대학 120억 원의 규모로 도입되어 대학 51개교, 전문대학 30개교를 선정·지원하였으며, 2013년은 추가 선정 없이 대학 2,184억 원, 전문대학 15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였다. 대학은 사업 유형에 따라 대학원이 참여하여 원천기술개발과 연구 성과 사업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술혁신형’과

학부를 중심으로 현장중심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현장밀착형’으로 구별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기술혁신형 14개 대학에는 평균 43~57억 원, 현장밀착형 37개 대학에는 평균 32~47억 원이 차등 지원된다(<표 3-6> 참조). 전문대학 역시 ‘산학협력선도형’과 ‘현장실습중점형’으로 이원화하여 대학 특색에 맞게 지원된다.

〈표 3-6〉 LINC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

구분	기술혁신형	현장밀착형
사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산업 연계형 대학특성화, 산학친화형 대학체제 개선 등을 통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지역인재 유출 방지 및 취업 미스매치 해소</li> <li>창의적 기술 인재 및 연구 인력 양성</li> <li>혁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li> <li>현장 애로기술 개발 등</li> </ul>
주요 공통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등) 및 취·창업 지원</li> <li>산학협력 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교원 임용 및 승진 제도 등)</li> <li>산학협력협의체 참여 및 연구년 교수 기업 파견 등 기업 지원</li> </ul>	
참여 대상	학부 + 대학원	학부
사업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년 ~ ’16년 (5년간: 2+3년)</li> <li>- (1단계: 2년간) 산학협력선도모델 기반 조성 및 내실화</li> <li>- (2단계: 3년간) 산학협력 성과 창출 및 확산</li> </ul>	
대학 수	14개교	37개교
	총 51개교(수도권 7개교, 기타 4개 권역 각 11개교)	
성과 관리	연차평가, 단계평가(사업 2년 종료 후), 종합평가(사업 5년 종료 후)	

자료: 교육부(2013a)

LINC 사업은 한 학교당 32~57억 원을 지원하는 큰 규모의 사업이지만 창업동아리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창업의 준비 단계부터 실행, 성장촉진 단계까지 창업의 전반을 다루는 사업이므로 창

업동아리에 지원되는 비중은 상당히 적은 편이다. 특히 창업동아리 지원 관련 인센티브 또는 평가비중이 적기 때문에 학교의 지원 의지에 따라 동아리별 지원 정도가 천차만별이다.

또한 창업동아리 육성에 큰 역할을 하는 멘토의 경우에도, 멘토교수들에 대한 보상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조가 어렵고 학생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멘토의 수도 부족한 실정이다(교육부, 2012a; 교육부, 2013a). 하지만 이제 시행 시작 단계의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단순 창업동아리 육성 지원을 넘어 기업체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계 동아리 시스템이 마련([그림 3-2] 참조)되는 등 앞으로의 창업동아리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2] 산학연계 동아리 지원 사업 운영 체계 예시(전북대)

Step1	Step2	Step3	Step4
기업수요조사	동아리 구성	설명회	동아리 활동
대학생과 연계하여 아이템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업 신청 접수	지도교수 선임 및 참여 학생 모집 *500만 원/팀 지원	학생-산업체 동아리 운영 규정 및 활동일정 교육	산학협력 창업동아리 활동
Step5	Step6	Step7	Step8
발표회	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회 개최 및 우수팀 시상	만족도 조사 후 개선사항 반영		

자료: 교육부(2013b)

## 5. U-Startup Contest(대학 창업경진대회)

U-Startup Contest는 학생창업과 기술창업의 원천인 대학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성장한 창업회사를 발굴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학 내 창업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창업 후 재기사례와 교육관련 창업아이디어 발굴 등을 통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2012년 교육부와 매일경제신문이 처음 시행한 창업경진대회이다.

각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아이템)들이 발굴되고 있으나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지원을 통해 성장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이들의 성공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학 내 창업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U-startup Contest’이다. 특히 창업 성공사례 외에 실패 후 재기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창업·유지·성장 관련 노하우를 발굴 및 확산하는 것이 이 대회의 목표이다.

2013년의 경우 대학 연계 창업 부문(기업), 학생창업 아이디어 기획 부문(개인 및 팀), 창업실패 극복사례(개인) 등 총 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시상 규모는 총 9개 팀에 최대 500백만 원의 상금 및 산학연 협력 EXPO(창업 부문)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사업은 대학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그 밖에 기업경영 재기사례 부문(만 3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교육 관련 창업아이디어 기획 부문(대한민국 국민)도 함께 시행하여 폭넓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교육부, 2012b; 교육부, 2013c).

## 6. 네트워킹 파티형 멘토링(부제: 디딤돌)

교육부는 선배창업자들로 멘토(Y멘토스)를 구성하여 창업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창업을 하려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창업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추진과정을 지도해 주는 디딤돌(didimdol)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http://seoulvi.com/>).

멘티는 ‘디딤돌챌린지’를 통하여 선발하는데, 디딤돌챌린지 참가자들은 Y멘토스의 도움을 받아 단기간(24시간) 안에 사업화 전 단계까지의 창업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다(<표 3-7> 참조).

〈표 3-7〉 네트워킹 파티형 멘토링 지원 진행순서

순서	내용
1. 멘티 선발	디딤돌챌린지(1박2일), ‘해커톤’ 형태의 아이디어경진대회를 통해 50팀 선발
2. 멘토링 팀매칭	Y멘토스와 1:1팀 구성 (멘토와 멘티 각각 선호도에 따라 매칭)
3. 멘토링	멘토와의 3개월 멘토링(대면, 전화, E-mail 등) 월 1회 네트워킹 모임, 최종 데모데이 개최
4. 멘토링 후속지원	EXPO 참가(10월 말), 기타 소속학교와의 협력 프로그램 참여(기획 중) 페이스북 등 SNS 활용, 멘토링 지속

자료: <http://seoulvi.com/>

## 7.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미래창조과학부는 벤처1세대의 ‘성공’과 ‘성실한 실패’의 경험을 벤처동아리 등 젊은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활용하게 하고, 나아가 벤처1세대의 경험과 젊은 창업아이디어가 결합되는 공동창업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1,300백만 원의 예산으로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기존의 일회성, 강의 위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넘어 벤처기업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의 추천을 받은 ‘성실 실패를 경험한 벤처1세대’를 중심으로 상시적인 멘토단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누리꿈스퀘어 내에 마련한(2013년 7월 개소) 벤처1세대 멘토사무실을 통해 벤처동아리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초기 벤처기업의 현장 애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멘토단은 창업정신 교육, 윤리규정 준수 의무 및 일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표 3-8〉 벤처1세대 멘토링 프로그램

구 분	대상자	교육·자문 내용
대학 창업동아리 예비창업 멘토링	20개팀 선발	창업 실행을 위한 이론과 실습 병행 교육
청년창업가 현장 애로 멘토링	20개사 선정	글로벌 지향 청년창업가 기술·마케팅 멘토링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3)

또한 실패한 벤처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벤처동아리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2013년 시행 첫해에 시범적으로 성실한 실패 벤처1세대와 창업동아리 간 공동창업팀을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공·실패 경험 공유를 위한 ‘벤처1세대 포럼’을 운영하여 동일한 실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상시 연구회 활동과 상·하반기 1회씩의 세미나 개최로 이원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 실패 벤처인의 공동창업, 그리고 포럼 운영 등을 통하여 벤처1세대의 성공과 ‘성실한 실패’의 경험, 노하우를 활용하여 창업 희망자에게는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성실한 실패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미래창조과학부 2013).

## 8. 전국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년도부터 ‘전국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의 목적은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창업정신 고취 및 대학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2013년 제3회 경진대회에서는 혁신 아이디어 부문과 창업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공공 분야 특허기술(NTB<sup>6</sup>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모델로도 지원 가능하다.

---

6) NTB(Network for Tech-Biz, 국가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는 기술 공급-수요자 간 정보교류를 통한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이전 대상 기술정보 등을 수집·유통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종합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표 3-9〉 전국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참가 부문

부문	내용
혁신 아이디어	상상력과 모험심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
창업	사업 아이디어에 창업 실행 계획이 포함된 아이템

자료: <http://www.start-up.or.kr/>

심사기준은 혁신 아이디어 부문의 경우 아이디어의 우수성, 전달력, 실현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창업 부문의 경우 창업팀 역량, 사업성, 기술성, 전달력, 전담멘토 평가(사업계획의 구체성)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입상자들에게는 총 3,000만 원(최대 1,000만 원)의 창업 지원금, 총 6,000만 원 상당의 해외 탐방 특전을 제공한다. 또한 결선진출자 모두에게 전담멘토를 1개월 동안 배정하여 우수 참가자들이 창업과정에 대한 밀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www.start-up.or.kr/>).

## 9.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서울시에서는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금과 인프라가 부족한 청년들을 선발해 창업자금과 공간 등을 제공하는 종합 창업 지원 정책인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를 2009년에 시작해 5년째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이 활성화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을 통하여 4년간 1,850개의 창업 기업이 탄생되었고, 그 결과 5,056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는 공간과 자금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

는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서는 공간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예비창업자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 공간을 제공받는 다른 창업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20~30대<sup>7)</sup>의 서울시 거주 청년들이며 일반전형(지식창업, 일반창업, 기술창업) 1,200개 팀과 특별전형(사회적 경제, 재능형 창업 분야) 100개 팀 등 총 1,300개 팀을 모집·선발하여 1년간 창업을 위한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표 3-10> 참조). 강북청년창업센터와 강남청년창업센터에서 1팀당 10㎡의 공동창업공간과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해 우수한 창업성과를 거둔 입주자는 월 최대 100만 원의 창업아이템 개발비를 지원받는다(서울시, 2013).

〈표 3-10〉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모집 분야

모집 분야	업종
지식 창업	• 지식콘텐츠, 마케팅, 컨설팅, 번역·웹디자인, 통신, 오락·문화·운동 서비스업 등
기술 창업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등
일반 창업	•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통업, 아이디어 창업 등
특별 전형	• 사회적 경제 분야: 공유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 재능형 창업 분야: 캠퍼스CEO, 우수숨씨창업, 서울시창업스쿨 우수자

자료: 서울특별시청(2013)

7) 청년창업 분야에서 청년은 20~39세의 연령층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도 청년층은 동일한 연령층을 가리킨다.

동시에 멘토링, 교육, 코칭, 컨설팅을 해주는 ‘창업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1년간 지원 후에도 우수기업들에 대해서는 청년창업 플러스센터에 입주시켜 창업공간 및 모니터링, 마케팅 등을 추가 지원한다. 그리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제품 전시판매장인 ‘꿈꾸는 청년가게’ 등을 통해 위탁판매를 지원하고,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을 통해 신규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각종 박람회 등으로 외부 홍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기업들의 꾸준한 성장을 돕는다.

서울시는 또한 2012년부터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졸업자 중 휴·폐업으로 기업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50명 내외)으로 재창업(Re-Born) 아카데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32시간의 재창업 교육, 재창업 힐링캠프, 맞춤형 코칭 및 전문가 상담, 재창업 경진대회, 그리고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재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한다(<http://www.sba.seoul.kr>).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출신 창업자들이 꼽은 이 사업의 강점으로는 공간 제공, 자금 지원, 멘토제도, 그룹코칭, 마케팅 및 창업교육 제공, 지적재산권 등 법 상담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이들이 공통으로 가장 큰 혜택으로 보는 것은 공간 제공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3기 출신인 운동선 도큐헛 대표는 1년간 공간 사용 비용인 4,000여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센터 내부에 회의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회사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좋게 만들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지연 U&U 대표는 창업 초창기엔 회의할 공간조차 마땅하지 않아 카페를 전전하거나 공간을 빌려 눈치를 보며 작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동 프로젝트에서 사무실을 제공받아 안정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많은 도

움이 되었고, 같은 업종에 창업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팀 미팅을 하는 등 정보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공간 활용의 장점을 제시했다.

창업 초기에 또래 창업자들과의 인맥은 정보 교류의 장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서울시의 각 창업센터에는 패션뿐만 아니라 IT 분야, 생산 제조 분야,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 이 커뮤니티를 통해 조언을 주고 받는 과정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윤세나 소프트웨어 대표의 의견 및 센터의 각 사무실에 있는 팀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이라는 김영근 오즈랩 대표의 의견 또한 같은 맥락이다(서울시, 2011).

서울시 외의 지자체에서도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의 ‘대학 및 청년창업 500프로젝트’, 충남의 ‘CEO 500프로젝트’, 부산과 대구의 ‘청년창업 지원 사업’, 경북의 ‘2030 성공창업 프로젝트’, 경남의 ‘청년창업 아카데미’, 강원도의 ‘청년창업 프로젝트’ 등이 있다. 이 중 대전과 충남의 사업은 대학생과 일반 청년을 이분화하여 지원하므로 상대적으로 경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보호·장려하는 지원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중소기업청 2013b).

## 10. 기타 창업동아리 중점 지원 사업

창업동아리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강원도의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과 전남의 ‘대학 벤처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이 있다.

강원도의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은 도내 대학(교) 및 전문계 고등학교 우수 창업동아리 중에서 20개 내외를 선발하여 창업아이템 개발 등 창업동아리 활동비 일부를 지원한다. 그러나 사업금액이 40 백만 원(도비)으로 제한적이어서 활동공간 제공은 지원되지 않는다.

전남의 ‘대학 벤처동아리 육성 지원’ 사업은 전남지역 9개 대학 62 개 동아리에 총 1억 6,000만 원의 규모로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창업 컨설팅, 시제품 제작·판매 등을 지원한다. 앞의 강원도 ‘청년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에 비해 많은 동아리를 지원하지만 역시 공간 제공까지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중소기업청, 2013b).

이 밖에도 창업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창업경진대회가 있으며, 대회에서 수상하는 팀에게는 상금 및 국제대회 출전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제2절 정부의 창업동아리 지원 정책의 문제점

### 1. 상시적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부족

대학 창업동아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창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공간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창업동아리에게 제공되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며, 청년창업의 붐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종합적인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창업동아리보다 창업 가능성

이 높은 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에게 공간 제공이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창업 초기 단계의 동아리에는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청년창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대학별 상황에 따라 창업동아리에 제공되는 공간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수도권 대학일수록 여유 공간이 적으므로 창업동아리에 제공되는 공간의 제약이 크고,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에도 대학의 의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창업 공간을 모두 정부재정을 통해 지원하려고 하기보다 대학 스스로 학생창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 2. 청년창업 지원 총괄부처의 부재

앞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지원 사업을 보면 비슷한 성격의 지원 사업이 다른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전체 청년 창업 동아리 지원 정책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LINC 사업의 창업 지원 사업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으로 인한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한다. 가령 산학협력선도대학과 창업선도대학 모두에 해당하는 대학의 경우 창업동아리 관련 사업들을 LINC에 포함시켜야 할지 아니면 중소기업청 사업으로 분류해야 할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전국창업동아리연합인 SSN이 창립된 지 약 1년이 되자마자 중소기업청에서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 NEST의 조직을 지원하였다.

이는 이제 갓 출범한 전국 단위의 창업동아리 연합단체를 둘러싸고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조직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창업동아리 활성화에 나름대로의 장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어느 정도 단체가 안정화된 상태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초기 단계에서는 상호 협조체제 하에서 전국적인 조직의 체계를 공고히 하는 면에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 창업동아리 지원 규모의 영세성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창업화 사업화 지원 사업’과 교육부의 ‘LINC 사업’은 규모가 큰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지만, 여기에서 지원하는 창업동아리 육성은 총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창업동아리 지원 관련 인센티브 및 관련 평가항목의 비중이 전체 항목에 비해 적기 때문에 학교의 지원의지에 따라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 정도가 달라지고 연도별로 지원이 안정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학생들이 사업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멘토링 시스템인데, 멘토 역할을 하는 대학 교수 및 직원들에게 별도의 보상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또한 전담하는 멘토의 수가 현저히 적고 겸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업무 집중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창업동아리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자체 일부에서 시행 중에 있지만 이들 지원 사업의 경우 자금 규모의 제한으로 공간 제공을 못하는 등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 4. 창업동아리 지원 체계의 연계성 부족

청년창업 지원 사업의 취지는 초기 단계인 창업동아리 발굴에서 시작하여 창업보육 단계, 그리고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이어지는 창업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사업들의 운영 체계를 보면 이러한 단계별 지원이 체계화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각 단계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기 단계에 지원 대상이었던 창업동아리가 다음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기보다는 일회성이거나 사업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원금의 상당 부분은 지원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즉 현 시점에서 창업 가능성이 높은 (예비)창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여러 정책이 마련되는 경우에는 창업의 전 단계를 다루지 못하고 단순한 지원에 그칠 우려조차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의 창업아카데미 지원 사업의 경우 수혜자 간 연계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창업역량 강화가 미흡하여 수료생의 창업 유인 효과가 감소되는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중소기업청, 2013c).

## 제4장

# 대학 창업동아리 실태 분석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청년 창업동아리 실태 조사 결과

제3절 청년창업 계획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 제4장 | 대학 창업동아리 실태 분석

박 동

### 제1절 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우리나라의 청년창업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청년층의 고용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고 고용률이 4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 형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 스스로가 체감하고 있는 대학 및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 실태 및 대학생의 창업동아리 활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조사는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다. 조사 대상 모집단은 전국의 전문대 및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이다. 창업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표본은 권역별 할당을 통해 추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문 조사기관에서 대인면접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 4-1〉 설문조사 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청년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방문면접조사
표본추출 방법	▪ 권역별 비례할당 표본추출
유효표본	▪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900명 - 창업동아리 가입자: 460명 - 창업동아리 미 가입자: 440명
조사 기간	▪ 2013. 5. 29. ~ 2013. 6. 14

전체 표본의 크기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900명이며, 이 중 창업동아리 가입자가 460명(51.1%)이고, 창업동아리 미가입자가 440명(48.9%)이다. 표본은 전국의 5개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로 비례할당하여 추출하였으며, 대학 수로 보면 전국적으로 62개에 달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청년고용 및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 청년 창업동아리, 창업동아리 활동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청년창업 멘토링 등이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아래의 <표 4-2>와 같다.

〈표 4-2〉 설문조사 세부 내용

구분	세부 문항
I. 청년고용 및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	(1) 졸업 후 취업 가능성
	(2)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
	(3) 졸업 후 진로 결정방향
	(4) 청년창업 관심 이유
	(5) 청년창업 실패 부담감
	(6) 청년창업 실패 부담감 이유

&lt;표 계속&gt;

구분	세부 문항
Ⅱ. 청년 창업동아리	(1) 향후 5년 이내 청년창업 계획
	(2) 청년창업 아이템 소유 여부
	(3) 청년창업 시 관심 분야
	(4)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5) 창업동아리 활동 시작 계기
	(6) 창업동아리 활동 만족 정도
	(7) 창업동아리 활동 만족 이유
	(8) 창업동아리 활동 불만족 이유
	(9) 창업동아리 활동의 흥미
	(10) 창업동아리 활동의 적극성
	(11)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참여경험
	(12) 교내외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만족 정도
	(13)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불만족 이유
	(14)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입상경험
	(15) 경진대회 입상경험 후 실제 창업 도움 정도
	(16) 창업동아리 활동의 장점
	(17) 창업동아리 걱정 참여인원
	(18) 학내 창업동아리 활동
	(19) 창업동아리 전용공간 여부
	(20)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대학 지원 정도
	(21) 학내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 정도
	(22)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외부 투자 정도
	(23) 창업동아리 운영상의 문제점
Ⅲ. 창업동아리 활동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1) 현재 학내외 창업동아리 활동 환경
	(2) 창업동아리 활동 시 문제점
	(3) 창업동아리 참여활동의 개선 방안
Ⅳ. 청년창업 멘토링	(1) 정부 지원 청년창업 관련 사업 참여 여부
	(2) 정부 지원 청년창업 참여 시 만족 정도
	(3) 청년창업 시 멘토링 필요성

&lt;표 계속&gt;

64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구분	세부 문항
V. 응답자 일반 현황	(4) 청년창업 시 멘토링 필요 이유
	(5) 청년창업을 위한 멘토링 실시 여부
	(6) 멘토링 경험 여부
	(7) 멘토링 경험 시 만족 정도
	(8) 멘토링 경험 시 불만족 이유
	(9) 멘토링 활동강화에 필요사항
	(1) 전공계열
	(2) 학년
	(3) 창업동아리 가입기간
(4) 성명/연락처	
(5) 소속학교/학과명	
(6) 성별/연령	

한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4-3>과 같다.

<표 4-3> 응답자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명)	비율(%)	
전체	900	100.0	
학교급별	4년제대	698	77.6
	전문대	202	22.4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25	13.9
	경상계열	116	12.9
	공학계열(IT계열)	185	20.6
	공학계열 일반(비IT계열)	185	20.6
	자연계열	86	9.6
	예체능계열	134	14.9
	기타	39	4.3
	무응답	30	3.3

<표 계속>

	구분	사례 수(명)	비율(%)
학년	학부 1학년	148	16.4
	학부 2학년	253	28.1
	학부 3학년	207	23.0
	학부 4학년	251	27.9
	기타	3	0.3
	무응답	38	4.2
성별	남자	362	40.2
	여자	320	35.6
	무응답	218	24.2
지역_권역별	수도권	714	79.3
	지방	186	20.7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있다	460	51.1
	없다	440	48.9

본 조사에 응답한 총 900명의 응답자 중 일반 4년제대학은 698명(77.6%)이고, 전문대학은 202명(22.4%)에 달하였다. 전공별로는 공학계열 응답자(IT계열 20.6%, 비IT계열 20.6%)가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열(14.9%), 인문·사회계열(13.9%) 응답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학생이 79.3%, 지방이 20.7%를 차지하여 수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었다.

## 제2절 청년 창업동아리 실태 조사 결과

### 1. 청년고용 및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

먼저, 창업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취업이 ‘쉬울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20.0%에 불과하였다. 이에 반해 37.3%의 학생들은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전공계열별로는 취업이 ‘쉬울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자연계열 24.4%, 공학계열 중 IT계열 21.6%, 공학계열 중 비IT계열 20.5%, 경상계열 17.3%, 예체능계열 17.1%, 인문·사회계열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자연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성별로는 취업이 ‘쉬울 것’이라는 응답이 남학생 23.2%, 여학생 19.0%로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미래 취업 가능성을 더 어렵게 전망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19.4%, 22.0%로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취업전망에 대해 더 어렵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전공 분야로의 취업의 가능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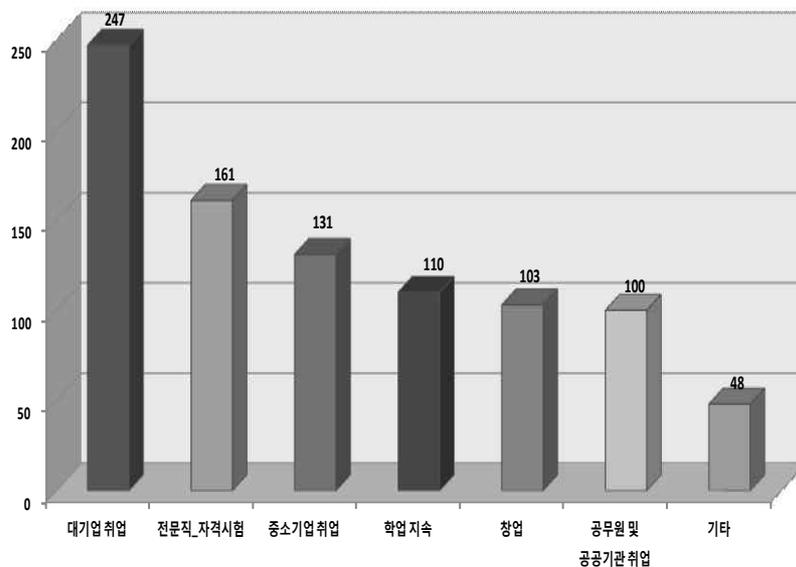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매우 어려울것	다소 어려울것	보통	다소 쉬울것임	매우 쉬울것임	카이 제곱 값	유의 확률
전체	900	8.7	22.2	41.7	20.2	7.2	-	-
학교급별	4년제대	698	10.7	22.9	40.1	19.5	19.850	0.001
	전문대	202	1.5	19.8	47.0	22.8		
전공계열	인문· 사회 계열	125	12.0	29.6	38.4	16.8	69.877	0.000
	경상 계열	116	13.8	25.9	44.0	12.9		
	공학 계열 (IT계열)	185	8.1	17.3	43.2	21.1		
	공학계열 일반 (비IT 계열)	185	5.9	22.2	46.5	20.0		
	자연 계열	86	8.1	27.9	29.1	27.9		
	예체능계 열	134	8.2	17.9	44.8	22.4		
	기타	39	2.6	12.8	28.2	25.6		
	무응답	30	6.7	23.3	46.7	20.0		
성별	남자	362	8.3	20.2	40.6	21.8	0.889	0.926
	여자	320	7.5	21.3	40.6	23.1		
	무응답	218	11.0	27.1	45.0	13.3		
지역 권역별	수도권	714	9.9	23.4	40.9	19.3	13.388	0.010
	지방	186	3.8	17.7	44.6	23.7		
창업 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있다	460	7.0	22.6	41.5	21.1	4.066	0.397
	없다	440	10.5	21.8	41.8	19.3		

다음으로,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27.4%의 학생들이 ‘쉬울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은 30.9%에 달하였다(<표 4-4> 참조). 학교급별로는 전문대학생들(31.7%)이 4년제 학생들(26.2%)보다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에 대해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 학생들(33.9%)이 수도권 학생들(25.7%)보다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을 더 밝게 보았다.

[그림 4-1] 졸업 후 진로 설정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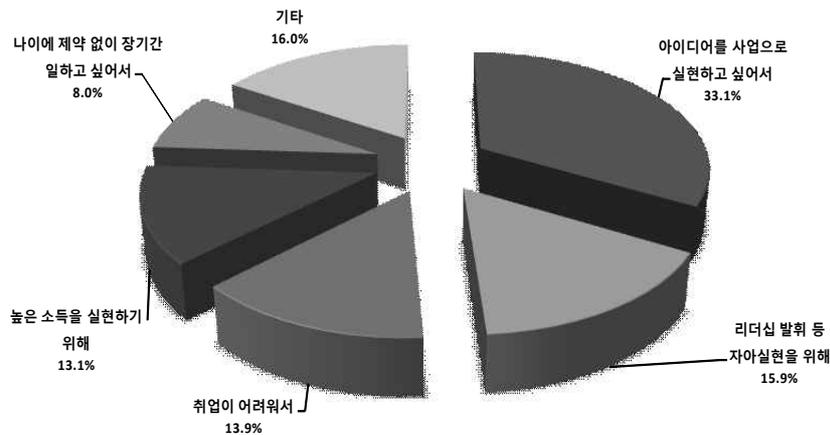


창업에 관심을 둔 학생들이 설정하고 있는 졸업 후의 진로를 살펴 보면, 응답자의 27.4%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였고 17.9%는 자격시험 등을 통해 ‘전문직’에 종사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14.6%는 ‘중소

기업 취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을 선택한 학생들이 103명으로 11.4%에 달해 창업관심 학생들의 경우에는 취업만이 아니라 창업도 미래의 진로로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관심자들이 청년창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는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리더십 발휘 등 자아실현'(16%), '취업이 어려워서'(14%), '높은 소득을 실현하기 위해'(13%) 등의 순이었다. 이는 창업에 관심을 둔 대학생들의 1/3 정도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향후 이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양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 청년창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



그러나 창업관심자 중 청년창업 실패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학생들의 비중이 56.3%에 달하고 있어 아이디어 창업 등 창업에 따른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학생들은 창업에 따른 실패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따르는 실패 부담의 이유로는 재정적 부담(55.1%), 취업포기로 인한 기회비용(16.4%),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12.7%) 등으로 학생들이 금전적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 방향에서 청년창업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 학생 창업동아리에 대한 인식

창업에 관심을 둔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 900명 중 약 1/3의 학생들은 향후 창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경상계열(43.1%), 자연계열(40.7%), 인문·사회계열(35.2%) 등의 순으로 미래 창업계획을 갖고 있으며, 여학생(30.6%)보다 남학생(36.7%)이, 그리고 수도권(31.5%)보다 지방(41.4%) 학생들이 더 많이 창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창업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45.7%)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20.9%)보다 2배 이상 창업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4-5〉 창업관심 대학생 중 향후 창업 계획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카이제곱 값	유의확률
전체		900	33.6	66.4	-	-
학교급별	4년제대	698	33.7	66.3	0.018	0.895
	전문대	202	33.2	66.8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25	35.2	64.8	10.729	0.097
	경상계열	116	43.1	56.9		
	공학계열(IT계열)	185	29.2	70.8		
	공학계열 일반 (비 IT계열)	185	29.7	70.3		
	자연계열	86	40.7	59.3		
	예체능계열	134	33.6	66.4		
	기타	39	25.6	74.4		
	무응답	30	30.0	70.0		
학년	학부 1학년	148	25.7	74.3	13.593	0.009
	학부 2학년	253	41.9	58.1		
	학부 3학년	207	32.4	67.6		
	학부 4학년	251	32.7	67.3		
	기타	3	-	100.0		
	무응답	38	23.7	76.3		
성별	남자	362	36.7	63.3	2.836	0.092
	여자	320	30.6	69.4		
	무응답	218	32.6	67.4		
지역_권역별	수도권	714	31.5	68.5	6.467	0.011
	지방	186	41.4	58.6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있다	460	45.7	54.3	61.752	0.000
	없다	440	20.9	79.1		

창업관심 대학생들 중 31.4%는 나름대로 자신만의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IT계열 25.9%, 비IT계열 24.9%)이 평균치 이하를 밑도는 가운데 자연계열(37.2%), 경상계열(34.5%), 인문·사회계열(33.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학계열 학생들이 오히려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한 결과로 판단된다. 성별로는 남학생(33.4%)이 여학생(28.1%)보다 창업

〈표 4-6〉 창업관심 대학생의 창업 아이템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카이제곱 값	유의확률	
전체	900	31.4	68.6	-	-	
학교급별	4년제대	698	32.5	67.5	1.674	0.196
	전문대	202	27.7	72.3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25	33.6	66.4	13.857	0.031
	경상계열	116	34.5	65.5		
	공학계열(IT계열)	185	25.9	74.1		
	공학계열 일반(비IT계열)	185	24.9	75.1		
	자연계열	86	37.2	62.8		
	예체능계열	134	32.1	67.9		
	기타	39	48.7	51.3		
	무응답	30	43.3	56.7		
성별	남자	362	33.4	66.6	2.233	0.135
	여자	320	28.1	71.9		
	무응답	218	33.0	67.0		
지역_권역별	수도권	714	30.0	70.0	3.475	0.062
	지방	186	37.1	62.9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있다	460	40.4	59.6	35.279	0.000
	없다	440	22.0	78.0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지방 학생들(37.0%)이 수도권 학생들(30.0%)보다 더 많이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40.4%)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22.0%)보다 창업아이템 보유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생들의 창업관심 분야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그중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IT 서비스업이 2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요식업과 유통업을 포함하는 일반 자영업 18.0%,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15.1%, 각종 용품 개발을 포함한 제조 관련 분야 10.4%, 미디어, 언론, 콘텐츠 분야 9.0% 등의 순이었다.

〈표 4-7〉 대학생의 청년창업 관심 분야

(단위: 명, %)

사례 수	사례 수	비율
전체	900	100.0
IT 서비스업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183	20.3
일반 자영업 (요식업, 유통업 등)	162	18.0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136	15.1
제조 관련 분야 (각종 용품 개발 포함)	94	10.4
미디어, 언론, 콘텐츠 분야	81	9.0
교육 서비스 분야	74	8.2
바이오, 화학 분야	41	4.6
전기전자 관련 분야	37	4.1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36	4.0
기타	56	6.2

설문에 응답한 900명의 학생들 중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비율은 51.1%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48.9%로 나타났다. 대학 2학년에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지다가 이후 3~4학년에는 다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수도권 학생들(44.3%)보다 지방 학생들(77.4%)의 경우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창업관심 대학생의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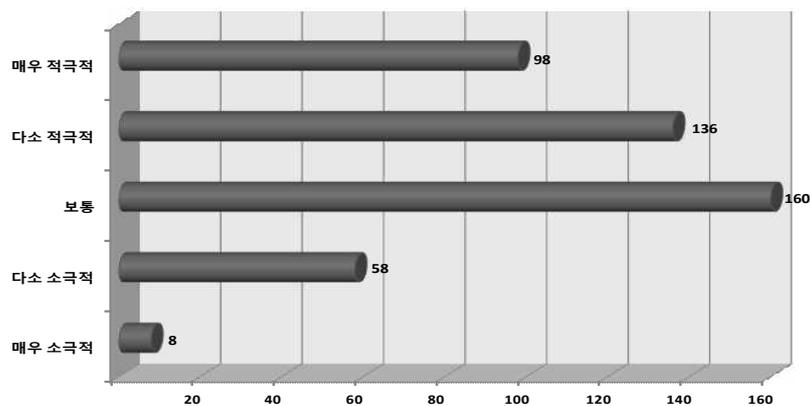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카이제곱 값	유의확률
전체		900	51.1	48.9	-	-
학교급별	4년제대	698	45.8	54.2	34.511	0.000
	전문대	202	69.3	30.7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125	45.6	54.4	31.581	0.000
	경상계열	116	66.4	33.6		
	공학계열 (IT계열)	185	44.9	55.1		
	공학계열 일반 (비IT계열)	185	43.2	56.8		
	자연계열	86	44.2	55.8		
	예체능계열	134	64.2	35.8		
	기타	39	59.0	41.0		
	무응답	30	53.3	46.7		
학년	학부 1학년	148	58.1	41.9	32.419	0.000
	학부 2학년	253	62.5	37.5		
	학부 3학년	207	46.9	53.1		
	학부 4학년	251	39.0	61.0		
	기타	3	33.3	66.7		
	무응답	38	52.6	47.4		
성별	남자	362	51.7	48.3	0.216	0.642
	여자	320	53.4	46.6		
	무응답	218	46.8	53.2		
지역_권역별	수도권	714	44.3	55.7	64.940	0.000
	지방	186	77.4	22.6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발적 관심’(39.6%), ‘학내 인맥형성’(17.8%), ‘학내 홍보활동을 접하고서’(16.3%) 등 학생 스스로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460명의 학생들 중 동아리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54.0%)는 응답이 불만족(10.9%)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동아리 활동이 학생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248명의 학생들은 만족하는 이유로 ‘창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때문’(32.7%), ‘창업의욕 고취’(23.0%), ‘경진대회, 공모전 등 참가’(22.2%),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16.1%) 등을 들었다. 불만족하는 학생 50명은 그 이유로 ‘동아리 활동을 위한 재정·공간 등의 지원 부족’(30.0%), ‘창업에 불필요한 활동’(24.0%), ‘참여 학생 간 수준차’(20.0%) 등을 꼽았다.

[그림 4-3] 창업동아리 활동 참여의 적극성 정도

(단위: 명)



대체로 창업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절대 다수(60.0%)는 동아리 활동이 흥미롭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적극성에 있어서도 234명(50.9%)의 학생들이 적극적이라는 응답을 보여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체로 적극적인 태도로 동아리 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 460명 중 38.0%는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등 교내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 1/3 이상이 실전적 창업활동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들이 참여한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0.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창업동아리 경진대회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41.9%)이 지적되었다. 이는 앞으로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4-9> 창업관심 대학생의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참여 경험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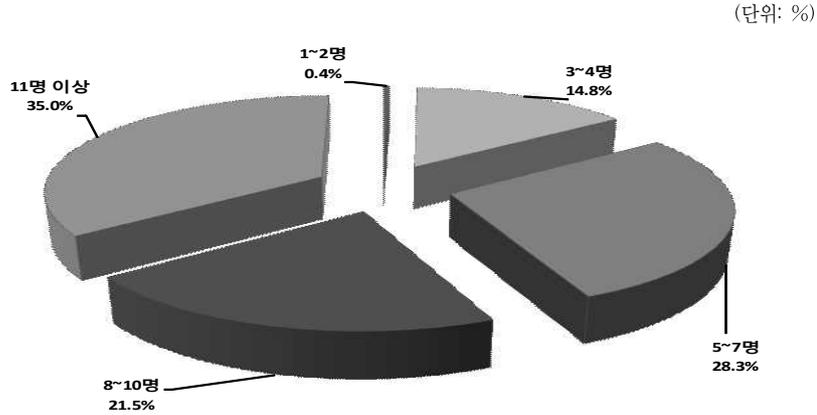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카이제곱 값	유의확률
전체		460	38.0	62.0	-	-
학교급별	4년제대	320	38.8	61.3	0.223	0.637
	전문대	140	36.4	63.6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57	22.8	77.2	12.500	0.052
	경상계열	77	37.7	62.3		
	공학계열 (IT계열)	83	39.8	60.2		
	공학계열 일반 (비IT계열)	80	43.8	56.3		

<표 계속>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카이제곱 값	유의확률
	자연계열	38	42.1	57.9		
	예체능계열	86	34.9	65.1		
	기타	23	60.9	39.1		
	무응답	16	31.3	68.8		
학년	학부 1학년	86	23.3	76.7	15.587	0.004
	학부 2학년	158	38.6	61.4		
	학부 3학년	97	39.2	60.8		
	학부 4학년	98	51.0	49.0		
	기타	1	-	100.0		
	무응답	20	30.0	70.0		
성별	남자	187	49.2	50.8	12.283	0.000
	여자	171	31.0	69.0		
	무응답	102	29.4	70.6		
지역_권역별	수도권	316	33.9	66.1	7.493	0.006
	지방	144	47.2	52.8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이 갖는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서는 ‘창업활동에 대한 생생한 체험’(34.6%), ‘인적 네트워크 구축’(24.1%), ‘창업정보 교환’(21.7%) 등이 지적되었다. 또한 창업동아리의 적정 인원으로는 11명 이상(35.0%), 5~7명(28.3%), 8~10명(21.5%), 3~4명 14.8%, 1~2명 0.4% 등으로 나타나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참여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창업동아리의 적정 참여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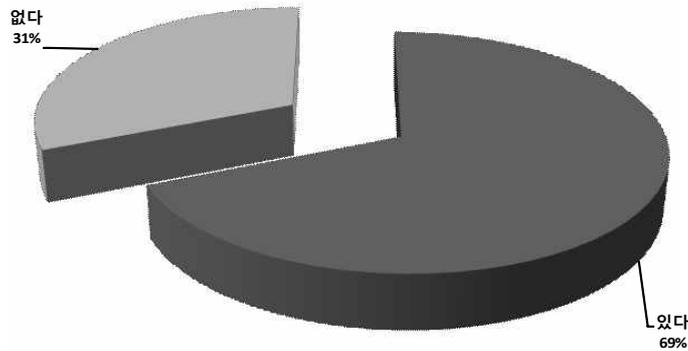


또한 학교 내에 학생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2/3 정도가 어떤 형태로든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반면, 약 1/3의 학생들은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5] 참조). 창업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41.2%의 학생들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앞으로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내 지원 정도에 대해서는 23.3%만이 ‘많다’고 응답하고 30.9%는 ‘없다’고 응답해 앞으로 대학 스스로가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이 29.8%로 만족 21.3%를 상회하였다.

[그림 4-5] 대학 내에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유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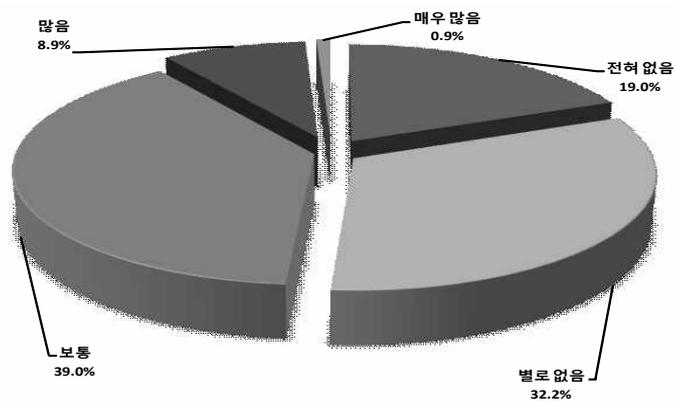
(단위: %)



그리고 학생 창업동아리에 대한 외부 투자 정도는 ‘많음’ 9.8%, ‘없음’ 51.2%로 사실상 학생 창업동아리에 대한 외부 투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외부 투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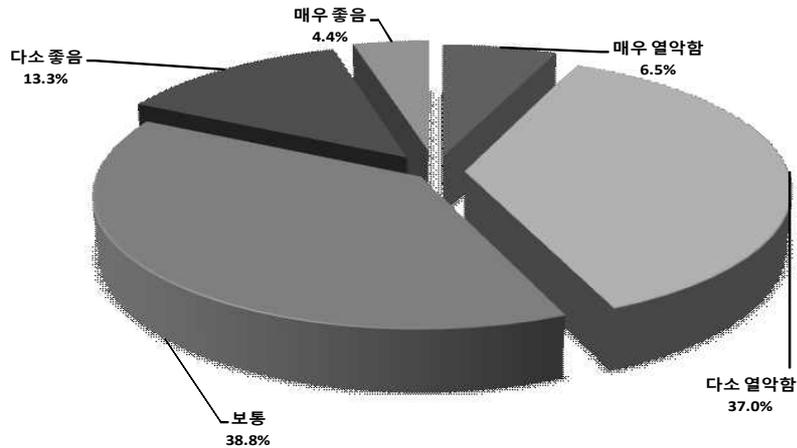
(단위: %)



학생 창업동아리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전용공간,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부족’(37.3%), ‘동아리 운영비 부족’(25.5%) 등이 제기되었으며, ‘창업목적에 대한 충실도 부족’(15.3%), ‘경직된 선후배 관계’(8.7), ‘교수의 동아리 지원 부족’(8.5%) 등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전체적으로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환경은 ‘열악하다’(43.5%)는 의견이 ‘좋다’(17.7%)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7] 창업동아리 활동 환경

(단위: %)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정규수업 과정과의 병행이 어렵다’(25.5%)는 지적이 1/4 이상으로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동아리 전용공간 미비’(20.3%),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20.0%), ‘학생들 간 소통 부족’(13.7%) 등으로 나타나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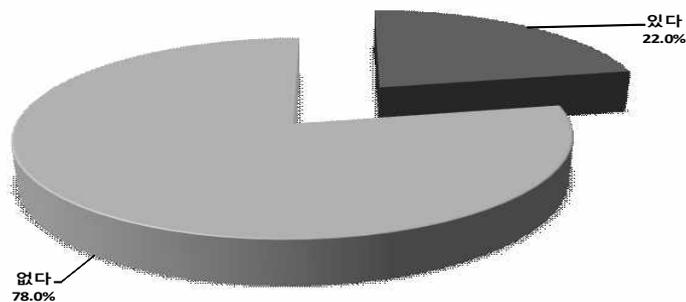
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기본조건을 갖추는 일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창업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창업동아리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28.3%), ‘창업 관련 소통기회의 확대’(19.4%), ‘창업교육 활성화’(13.5%), ‘창업활동 정보 제공 확대’(13.1%), ‘전용공간 제공’(1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3. 청년창업 멘토링에 대한 인식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한 대학생 중 22.0%가 정부 지원 청년 창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 101명 중 ‘만족한다’(41.6%)는 ‘불만족한다’(14.8%)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8] 정부 지원 청년창업 사업 참여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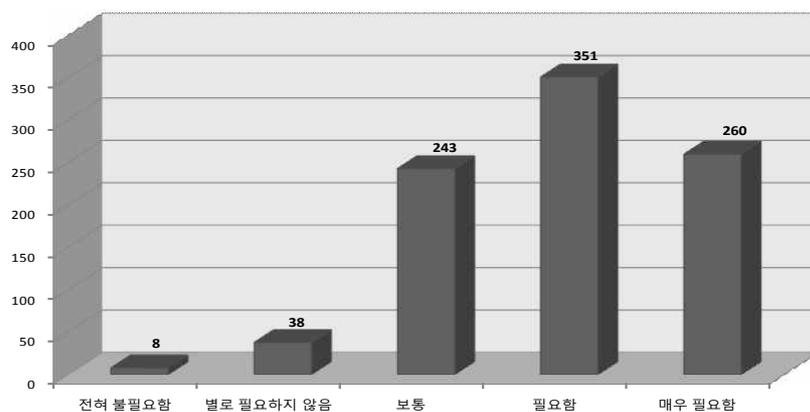


특히 창업관심 학생들은 청년창업의 성공에 있어서 교수나 산업체 인사의 멘토링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 900명 중 67.9%의 학생들이 멘토링이 ‘매우 필요’ 또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년창업에 있어서 멘토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즉, 학생들이 창업이라는 새로운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기술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창업활동 전반을 지도해 줄 멘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멘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34.2%), ‘사업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한 실패위험 감소’(22.7%), ‘최신 정보 습득’(18.2%)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40.4%가 청년창업을 위한 교수 및 산업체의 멘토링이 ‘부재하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청년창업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이 거의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9] 청년창업을 위한 교수 및 산업체 멘토링 필요성 여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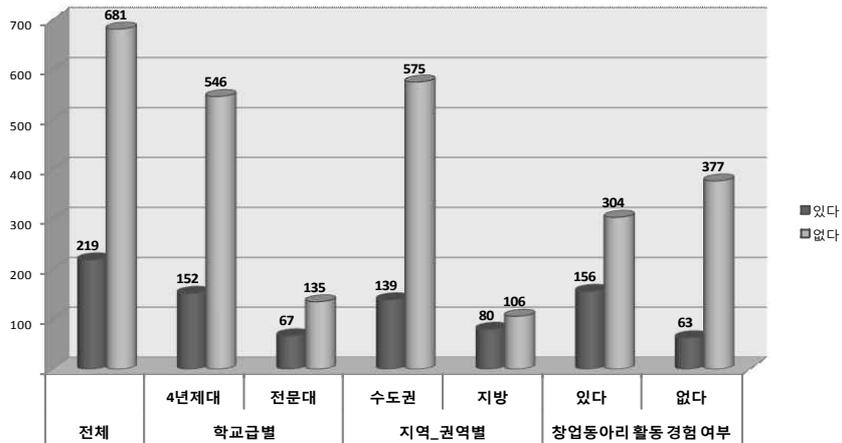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 900명 중 어떤 형태로든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멘토링을 경험한 학생은 24.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3/4에 달하는 학생들은 멘토링 경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나마 지방 학생들의 43.0%가 멘토링을 경험한 바 있고, 창업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 중 33.9%가 멘토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멘토링에 대한 만족도는 58.4%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멘토링에 대해 학생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62.2%)일수록 더욱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0] 창업관심자들의 멘토링 경험 여부

(단위: 명)



멘토링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멘토링을 통한 획득 내용 부실’ (50.0%)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상담시간’(18.2%), ‘멘토의 상담태도’(13.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제3절 청년창업 계획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이 절에서는 창업관심 학생들의 창업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응답자들의 ‘향후 창업계획 보유 여부’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창업동아리 관련 변수들을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

종속변수인 ‘향후 창업계획 보유 여부’는 그 값이 0 또는 1로 구성된 이분형 변수이므로 종속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 활용되는 일반적인 회귀모형을 적용한 분석이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적합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Dichotomous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모형의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단순 상관모형은 <표 4-10>과 같다.

<표 4-10>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exp(B)	표준오차
1.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	-0.115	0.892*	0.069
	상수항	-0.347	0.707	0.213
	-2 Log 우도	1145.706		
	Nagelkerke $R^2$	0.004		
2. 창업실패 부담감	창업실패 부담감	-0.296	0.744***	0.074
	상수항	0.371	1.45	0.27
	-2 Log 우도	1132.211		
	Nagelkerke $R^2$	0.025		
3. 창업아이템 보유	창업아이템 보유	2.062	7.860***	0.161
	상수항	-1.442	0.236***	0.102

<표 계속>

구분		회귀계수	exp(B)	표준오차
	-2 Log 우도	968.619		
	Nagelkerke $R^2$	0.251		
4. 동아리 활동 유경험	동아리 활동 유경험	1.156	3.177***	0.15
	상수항	-1.33	0.264***	0.117
	-2 Log 우도	1085.432		
	Nagelkerke $R^2$	0.094		
5. 동아리 활동 만족도	동아리 활동 만족도	0.276	1.318***	0.096
	상수항	-1.195	0.303***	0.37
	-2 Log 우도	625.824		
	Nagelkerke $R^2$	0.024		
6. 동아리 재미 정도	동아리 재미 정도	0.327	1.387***	0.101
	상수항	-1.401	0.246***	0.391
	-2 Log 우도	623.318		
	Nagelkerke $R^2$	0.031		
7. 동아리 참여 적극도	동아리 참여 적극도	0.361	1.434***	0.096
	상수항	-1.465	0.231***	0.358
	-2 Log 우도	619.541		
	Nagelkerke $R^2$	0.042		
8. 경진대회 참여 유경험	경진대회참여 유경험	0.829	2.290***	0.196
	상수항	-0.494	0.610***	0.122
	-2 Log 우도	615.995		
	Nagelkerke $R^2$	0.052		
9. 동아리 전용공간 있음	동아리 전용공간 있음	0.479	1.615**	0.206
	상수항	-0.511	0.600***	0.172
	-2 Log 우도	627.134		
	Nagelkerke $R^2$	0.016		
10. 동아리 외부 투자 정도	동아리 외부 투자 정도	-0.258	0.773**	0.103
	상수항	0.439	1.551*	0.264
	-2 Log 우도	626.31		
	Nagelkerke $R^2$	0.018		

&lt;표 계속&gt;

구분		회귀계수	exp(B)	표준오차
11. 정부 지원 사업 참여유경험	정부 지원 사업 참여유경험	0.926	2.524***	0.233
	상수항	-0.378	0.685***	0.107
	-2 Log 우도	617.811		
	Nagelkerke $R^2$	0.047		
12. 정부 지원 사업 만족도	정부 지원 사업 만족도	0.67	1.954**	0.265
	상수항	-1.669	0.188*	0.886
	-2 Log 우도	125.649		
	Nagelkerke $R^2$	0.092		
13. 멘토링 필요성	멘토링 필요성	0.35	1.420***	0.083
	상수항	-2.069	0.126***	0.34
	-2 Log 우도	1129.932		
	Nagelkerke $R^2$	0.028		
14. 멘토링 유경험	멘토링 유경험	0.944	2.570***	0.16
	상수항	-0.935	0.393***	0.085
	-2 Log 우도	1113.677		
	Nagelkerke $R^2$	0.053		
15. 창업동아리 가입기간	창업동아리 가입기간	0.067	1.069***	0.012
	상수항	-0.901	0.406***	0.082
	-2 Log 우도	1112.681		
	Nagelkerke $R^2$	0.054		
16. 남성	남성	0.274	1.316*	0.163
	상수항	-0.818	0.441***	0.121
	-2 Log 우도	870.356		
	Nagelkerke $R^2$	0.006		
17. 수도권	수도권	-0.429	0.651**	0.169
	상수항	-0.348	0.706**	0.149
	-2 Log 우도	1142.163		
	Nagelkerke $R^2$	0.01		

\* : p&lt;0.1, \*\* : p&lt;0.05, \*\*\* : p&lt;0.01

위에 제시된 <표 4-10>은 전체 설문항목 중 창업관심자들의 청년창업 계획 수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17개 설명변수에 대한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첫째, 창업관심자들의 경우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5점 척도)’이 한 단위 낮아질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1.12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에 관심을 둔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낮아졌다.

둘째, 창업관심자들은 ‘창업실패 부담감(5점 척도)’이 한 단위 낮아질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1.344배 높아졌다. 이는 창업실패 위험을 낮출수록 학생들의 창업계획 수립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고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7.860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유력한 창업아이템을 갖게 되는 경우 실제로 창업활동에 뛰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변수를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을 계획할 확률은 동아리 활동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3.177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 만족도(5점 척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1.318배, ‘동아리 활동의 재미(5점 척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1.387배가 높아지며, ‘동아리 참여 적극도(5점 척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1.434배 높은 확률로 창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리 전용공간’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창업계획 확률이 1.615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창업 경진대회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창업을 계획할 확률은 없는 경우에 비해 2.290배 높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가 한 단위 높아질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1.954배 높았다.

넷째, 창업관심자들의 경우 '멘토링 필요성(5점 척도)'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창업계획 확률이 1.420배 높아졌고, '멘토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2.570배 높은 확률을 나타냈다.

다섯째, 창업관심자들은 '창업동아리 가입기간(개월 수)'이 길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1.069배 높았고, 성별이 남자인 경우 여자에 비해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1.316배 높았다.

여섯째, 창업관심자 중 비수도권의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확률이 1.5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비수도권 학생들이 '전공 분야로 취업할 가능성'을 더 낮게 보고 있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즉 취업이 어려운 지방 학생들이 창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단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여타의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종속변수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이 청년창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므로 창업동아리와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여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설명변수 중에는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된 '동아리 활동' 관련 문항들이 있어 이를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설명변수들과 분류하여 두 개의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한 각각의 모형은 아래와 같다.

[모형 1]

$$Y = \ln p / (1 - p) = a + b_1 X_1 + b_2 X_2 + b_3 X_3 + b_4 X_4 + b_5 X_5 + b_6 X_6 \\ + b_7 T_1 + b_8 T_2 + b_9 T_3 + b_{10} T_4 + b_{11} T_5 + \epsilon$$

[모형 2]

$$Y = \ln p / (1 - p) = a + b_1 m_1 + b_2 m_2 + b_3 m_3 + b_4 m_4 + b_5 m_5 + b_6 m_6 \\ + b_7 T_1 + b_8 T_2 + b_9 T_3 + b_{10} T_4 + b_{11} T_5 + \epsilon$$

○ 종속변수:

$$Y = \text{창업계획 여부(있음=1, 없음=0)}$$

○ 설명변수:

$$X_1 = \text{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5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X_2 = \text{창업 실패 부담감(5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X_3 = \text{창업아이템 보유 여부(있음=1, 없음=0)}$$

$$X_4 = \text{창업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있음=1, 없음=0)}$$

$$X_5 = \text{멘토링 필요성(5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X_6 = \text{멘토링 경험 여부(있음=1, 없음=0)}$$

$$m_1 = \text{창업동아리 활동 만족도(5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m_2 = \text{창업동아리 활동 재미 정도(5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m_3 = \text{창업동아리 참여 적극도(5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m_4 = \text{창업경진대회 참여 경험 여부(있음=1, 없음=0)}$$

- $m_5$  = 창업동아리 전용공간 유무 여부(있음=1, 없음=0)
- $m_6$  = 창업동아리 외부 투자 정도(5점 척도; 매우 낮음=1 ↔ 매우 높음=5)
- $T_1$  = 학교급별 구분(4년제=1, 전문대=0)
- $T_2$  = 학년(재학 중인 학년; 1학년=1 ↔ 4학년=4)
- $T_3$  = 창업동아리 가입기간(총 개월 수)
- $T_4$  = 성별(남성=1, 여성=0)
- $T_5$  = 학교 소재지(수도권=1, 비수도권=0)

[모형 1]은 ‘전공분야 취업 가능성’,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 ‘창업 아이템 보유 여부’, ‘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멘토링 필요성’, ‘멘토링 경험 여부’ 등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6개 변수들이 설명변수로 포함된 분석 모형이다(N=900). [모형 2]는 ‘동아리 활동에 대한 만족도’, ‘동아리 활동의 재미 정도’, ‘동아리 참여 적극도’, ‘창업경진대회 참여 여부’, ‘동아리 전용 공간 유무 여부’, ‘동아리에 대한 외부 투자 정도’ 등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 한해 조사된 6개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분석 모형이다(N=460).

한편, 각각의 모형에서는 ‘학교급별 구분’, ‘학년’, ‘창업동아리 가입기간’, ‘성별’, ‘학교 소재지’ 등 5개의 통제 변수가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른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청년창업 계획 여부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회귀계수	exp(B)	표준오차	
[모형 1] N=900	전공분야 취업 가능성	-0.320	0.726***	0.097	
	창업 실패 부담감	-0.167	0.846*	0.102	
	창업아이템 보유 여부	1.984	7.271***	0.211	
	동아리 활동 경험 여부	0.917	2.501***	0.227	
	멘토링 필요성	0.281	1.324**	0.110	
	멘토링 경험 여부	0.619	1.857***	0.229	
	학교급별 구분	0.396	1.487	0.296	
	학년	-0.109	0.897	0.106	
	가입기간	0.027	1.027*	0.016	
	성별	0.172	1.187	0.200	
	지역	-0.037	0.964	0.278	
	상수항	-1.776	0.169**	0.720	
	-2 Log 우도		650.456		
	카이제곱(절편모형-이론모형)		204.144(df=11, p=.00)		
	Nagelkerke $R^2$		0.365		
[모형 2] N=460	동아리 활동 만족도	0.142	1.152	0.154	
	동아리 재미 정도	0.121	1.128	0.159	
	동아리 참여 적극도	0.152	1.164	0.128	
	창업 경진대회 참여 여부	0.373	1.451	0.260	
	동아리 전용공간 유무 여부	0.495	1.641*	0.285	
	동아리 외부 투자 정도	-0.438	0.645***	0.140	
	학교급별 구분	0.591	1.806*	0.330	
	학년	0.000	1.000	0.132	
	가입기간	0.042	1.043**	0.017	
	성별	0.586	1.797**	0.249	
	지역	-0.063	0.939	0.309	
	상수항	-2.031	0.131***	0.788	
	-2 Log 우도		424.339		
	카이제곱(절편모형-이론모형)		54.602(df=11, p=.00)		
	Nagelkerke $R^2$		0.195		

\* : p&lt;0.1, \*\* : p&lt;0.05, \*\*\* : p&lt;0.01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성을 검정한 결과, 우선 [모형 1]의 경우 -2 Log 우도값은 650.456으로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의 -2 Log 우도값인 854.600에 비해 204.144만큼 증가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형 2]의 경우 -2 Log 우도값은 424.339로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모형의 -2 Log 우도값인 478.941에 비해 54.602만큼 증가하여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적합도가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 유의수준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Nagelkerke  $R^2$ 은 모형에서 해당 독립변수들의 구성이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모형 1]에서는 분석 결과가 종속변수의 변동 중 36.5%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 가능하고, [모형 2]에서는 19.5%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이 한 단위 낮아질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1.377배( $1 \div 0.726$ )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에 관심을 둔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전공 분야로의 취업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전공 분야 취업과 창업계획 수립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학생들의 전공 분야 취업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학생들의 창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창업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한 단위 줄어들수록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의 창업계획 확률은 1.182배( $1 \div 0.846$ )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창업 실패에 대해 학생들이 가진 심리적

인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청년창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 대책과 함께 추후 창업 활동이 실패하더라도 학생들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정신적 충격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을 덜어줄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7.271배나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에 있어서 창업아이템 확보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실효성 있는 창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창업관심자 중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을 계획할 확률이 2.501배 높아지고 있다. 이는 청년창업에 있어서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경험을 활용하여 창업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분산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창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상호 융합함으로써 청년창업을 더욱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섯째, ‘멘토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창업관심 대학생들의 창업계획 확률은 1.324배 높아지고, ‘멘토링 경험’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계획 확률이 1.857배 높아진다. 이는 교수나 산업체 관계자들이 창업 초년생인 학생들에게 창업활동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다양한 멘토 활동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단순히 재정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청년창업 멘토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창업동아리 가입기간’이 1개월 늘어날수록 창업관심 학생들이 창업을 계획할 확률은 1.02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동아리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 능력 등을 갖춘 학생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는 ‘산 경험’(lived experience)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창업동아리 활동 경험을 오래하면 할수록 더욱 더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청년창업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청년창업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창업동아리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모형 2]를 통해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창업 계획 요인을 살펴본 결과, 4년제 학생들이 창업할 확률이 전문대 학생들에 비해 1.806배 높았으며, 남학생이 창업할 확률이 여학생에 비해 1.797배 더 높았다. [모형 1]과 마찬가지로 ‘창업동아리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창업 확률이 더 높아졌다.

또한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창업계획 확률은 1.641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년 창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전용공간을 제공해줌으로써 상시적 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창업동아리에 대한 외부 투자가 증가하는 경우 학생들의 창업계획 수립에는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창업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단순히 투자자금을 늘려 주는 것만으로는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 투자가 늘어날수록 학생들의 창업성공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에 따른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5장

# 국내외 창업동아리 우수사례 분석

제1절 미국의 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제2절 핀란드 알토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제3절 국내 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제4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분석



## 제5장 | 국내외 창업동아리 우수사례 분석

박 동 · 이종선

### 제1절 미국의 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실리콘벨리, 보스턴의 루트 128, 노스캐롤라이나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의 실리콘힐 등 미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혁신클러스터의 형성과 지속적인 발전은 지역 내에 위치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과 청년인재들의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과 도전, 그리고 창업정신(entrepreneurship)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종선 2004; 2005).

현재 이들 지역에는 세계 각국에서 혁신창업을 꿈꾸는 우수한 젊은 이들이 끊임없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식과 사람, 그리고 벤처자본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창업아이디어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으며, 창업과정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함께 공유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신규 창업으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젊은 청년들의 다양한 창업동아리 활동이 연구중심대학과 관련 민간조직 사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는 혁신클러스터 내 연구중심대학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청년창업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청년창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제도가 고안·운영되고 있으며,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체 운영되는 다양한 창업동아리 모임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 1. 스탠포드 대학의 창업동아리 사례

미국 청년창업의 산실은 세계적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와 인접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청년창업을 통한 경제적 성공기회를 얻기 위해 매년 창조적 젊은이들이 스탠포드 대학과 실리콘밸리를 찾는다. 실리콘밸리와 스탠포드 대학에는 청년창업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에게 훌륭한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성공한 벤처기업가와의 만남과 창업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성공과 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항상 열려 있다.

스탠포드 대학 내 가장 큰 청년 창업동아리 모임으로는 창업정신을 심어주고 학생과 벤처기업가, 그리고 커뮤니티 간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스탠포드 창업학생 비즈니스 협회(Business Association of Stanford Entrepreneurial Students, BASES)’가 있다. 베이스스 (BASES)는 현재 3천~4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동아리이다. 베이스스의 가장 큰 목적은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미래 창업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베이스스에서는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과 실리콘밸리 내 산업체들 사이의 소통을 촉진하고 청년창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사상 지도자 강연 시리즈’(Entrepreneurial Thought Leaders lecture series, ETL)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창업집중 훈련캠프인 이-부트캠프(E-Bootcamp), 창업도전과 사회적 창업도전(Social E-Challenge) 등 2개의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 학생 창업동아리들이 각종 발명품을 전시하고 경쟁하는 발명품 공개품평회인 ‘베이스스 150K Challenge’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http://bases.stanford.edu/>).

스탠포드 대학 재학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 창업동아리는 ‘스탠포드 벤처캐피탈 동아리’(Stanford Venture Capital Club, SVCC)이다. 이는 스탠포드 대학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학부 학생들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동 창업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동아리 가입신청서를 통해 자신의 창업 관심 분야와 그와 관련된 활동 내역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가입이 승인되고 있다.<sup>8)</sup>

현재 SVCC는 회원들이 창업 투자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벤처캐피탈사의 입장에서 신규 투자기업을 분석한 후 그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창업기업에 투자를 하는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SVCC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리콘밸리와 인접해 있는 스탠포드 대학의 매우 독특한 지리적 위치에 기인한 바 크다. 많은 벤처캐피탈이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1~2마일 이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벤처캐피탈과 대학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가진 신규 투자기업들이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속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8) 스탠포드대학 방문 시 SVCC 테사이(Amit Desai) 회장과의 인터뷰(2010.7.14.).

SVCC는 학교로부터는 물론이고 실리콘밸리 내 최대 벤처캐피탈사 중 하나인 ‘드레이퍼 피셔 저벳슨’(Draper Fisher Jurvetson)사 등의 재정적 후원을 받고 있다. 이처럼 실제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사의 후원을 받고 있는 SVCC 회원의 경우 창업아이디어만 좋으면 언제든지 창업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과 기회를 꿈꿀 수 있다 (SVCC 데사이 회장과의 인터뷰, 2010.7.14.).

<표 5-1> 스탠포드 경영대학의 학생 창업동아리 조직

단 체 명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빅아이디어 동아리	기술, 오락 및 디자인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 확산과 회원 간 대화와 토론 도모	
브루어스 길드	양조 과학(brewing science) 및 맥주산업의 지식과 경험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길드(Guild) 모임	
창업가 동아리 (E-Club)	창업희망 재학생과 외부 비즈니스 소유주 간의 멘토십(mentorship)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 졸업생(GSB)과 실리콘밸리 내 기업 커뮤니티 간 유대관계 형성	현재 회원 300명 이상 www.gsbeclub.org
금융투자 동아리(F&I)	금융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탐험과 학습기회 제공 학교에서 제공하는 15만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 관리	현재 회원 250명 www.fandclub.com
대(大) 중국 비즈니스 동아리	대(大) 중국지역(대만, 홍콩, 싱가포르 포함) 내에서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간 연결기회 제공	
하이테크 동아리	회원 간 기술의 핵심과 경향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www.stanford.edu/group/gsbhightech
마케팅 동아리	마케팅에 관심, 배경이 있거나 동 분야에 대한 커리어를 쌓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모임	www.stanford.edu/group/gsbmarketingclub
상품 디자인 및 제조 동아리 (PDMC)	디자이너와 발명가들이 일상적인 제품들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에 관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표 계속>

단 체 명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사회혁신 동아리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혁신적 방법에 대한 탐험 기회 제공	
지속가능 비즈니스 동아리(SBC)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서비스, 청정에너지, 물 자원, 그리고 기후 변화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기테크놀로지, 그리고 정책 리더들과의 연계기회 제공	
벤처캐피탈 (VC) 동아리	벤처캐피탈 기업가와 함께 하는 다양한 그룹 행사 후원과 개최. 소그룹 디너행사, 초청자 강연발표, 워크숍, 기타 사회적 이벤트 등	

자료: [www.gsb.stanford.edu](http://www.gsb.stanford.edu)

또한 스탠포드 경영대학 재학생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창업 관련 동아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표 5-1> 참조). 가장 큰 창업 관련 동아리는 창업가 동아리(E-Club)로서 현재 300명 이상의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50여 개의 창업 관련 행사를 실시하였다([www.gsbeclub.org](http://www.gsbeclub.org)). 이 밖에도 금융투자 동아리(F&I), 하이테크, 마케팅, 벤처캐피탈 등 창업 관련 학생동아리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리콘밸리가 청년 창업동아리 활동의 메카가 되고 있는 기저에는 스탠포드 대학의 독특한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가 함께 하고 있다(박동 외, 2010). 무엇보다도 스탠포드 대학은 재학생들의 창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청년창업 관련 프로그램은 스탠포드 공과대학 내 ‘경영과학 및 엔지니어링’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탠포드 기술 벤처 프로그램’(Stanford Technology Ventures Program, STVP)이다.

STVP에는 공학, 경영학, 법학 등 다학제적 학문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혁신창업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영학 및 공학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규 교과과정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창업코너’(ECorner) 웹사이트를 통해 동 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미나 및 강의 내용을 전파함으로써 새로운 청년 기술창업 활동과 학습에 기여하고 있다 (<http://stvp.stanford.edu>).

또한 ‘스탠포드 바이오디자인 프로그램’도 청년창업을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동 프로그램은 4주~10주까지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학 및 공학, 인문학, 법학, 의학 등 분야의 교수진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http://biodesign.stanford.edu/bdn/index.jsp>).

스탠포드 대학은 재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스탠포드 창업 네트워크’(Stanford Entrepreneurship Network, SEN)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네트워크는 대학 내 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각종 집단, 그리고 창업동아리 사이의 협력을 위한 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SEN은 재학생들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인 ‘코치스온콜’(Coaches-on-Call)을 운영하고 있다.

코치스온콜은 학생들이 등록 절차를 거쳐 산업체의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창업을 위해 조언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의 경우, 등록을 통해 일정이 확정되면 각각 30분씩 총 네 번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코치스온콜에서는 캠퍼스로 오게 될 코치들의 명단을 창업네트워크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미리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코치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sen.stanford.edu/>).

스탠포드 창업네트워크(SEN)의 회원조직 중 하나인 스타트엑스

(StartX)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참가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로서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의 신규 창업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스타트엑스는 열정과 재능이 있고 혁신적인 스탠포드 재학생과 지역 내 기업가, 성공한 동문, 그리고 200인 이상의 실리콘밸리 지도자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멘토 네트워크를 연계시킴으로써 체험교육을 통해 신규 창업가로 성장하도록 적극 돕고 있다. 스타트엑스는 신규 창업에 뜻이 있는 재학생들에게 멘토링 실시, 실시간 창업정보 제공, 그리고 창업자원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http://startx.stanford.edu/>).

## 2. MIT 대학의 창업동아리 사례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에 스탠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창업 동아리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동부의 혁신클러스터인 루트 128 지역에는 MIT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업동아리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아래 <표 5-2> 참조).

<표 5-2> MIT 대학의 주요 창업동아리 모임

단체명	주요 활동 내용	비고
창업가 동아리(EClub)	회원 간 주 단위의 모임과 주기적인 네트워킹 및 다양한 교육 이벤트를 통해 학생 창업활동 지원: IAP Class, 너트와 볼트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등	<a href="http://www.mit.edu/e-club">www.mit.edu/e-club</a>
혁신동아리 (iClub)	기업환경 속에서 혁신과정과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학습 및 상호교류 모임: 기술 시험대, 아이디어 교환 브레인스토밍, 혁신 랩 그리고 토론 시리즈 등	<a href="http://iclub.mit.edu">iclub.mit.edu</a>

<표 계속>

단 체 명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과학과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동아리	창업정신 고취 및 창업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 개최를 통한 네트워킹과 멘토십 기회 제공: 벤처십, 가을 네트워킹 바비큐 등	web.mit.edu/sebc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동아리	재학생에게 벤처자본과 사모펀드산업 관련 정보 이해 및 접촉 기회 제공: 워크숍, 초청강연, 연례 벤처 캐피탈회의 등	www.mitvcpe.com

자료: web.mit.edu/tlo

MIT 대학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창업동아리 모임은 ‘창업가 동아리’(EClub)이다. 창업가 동아리는 MIT 공동체 내 재학생, 교직원, 동문 및 선택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주 단위의 정기모임과 주기적인 네트워킹, 그리고 매년 1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의 ‘독자적 활동기’(Independent Activities Period)의 강의 등과 같은 각종 교육 이벤트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정신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각종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창업가 동아리는 매년 ‘너트와 볼트’(Nuts and Bolts) 사업계획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행사를 통해 학생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www.mit.edu/e-club).

‘혁신동아리’(iClub)는 혁신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업환경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탐구하는 재학생 대상의 창업동아리이다. 이 동아리는 매년 기술시험대, 아이디어 교환 브레인스토밍, 혁신 랩(Innovation Labs), 그리고 토론 시리즈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네트워킹을 위한 상호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과학과 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동아리’(SEBC)에서는 MIT 재학생과 박사 후 연구원, 그리고 MIT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창

업정신 고취 및 창업 기회를 갖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SEBC의 벤처십(Venture Ships) 프로그램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클럽(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Club)과 함께 재학생 팀들이 MIT와 연관된 초기 단계 기업들과 당면한 비즈니스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유용한 창업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밖에도 SEBC에서는 컨설팅, 금융, 마케팅 또는 기술 창업 분야에서의 네트워킹과 멘토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가을 네트워킹 바비큐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 동아리’(VCPE)는 창업기회를 갖고자 하는 MIT 재학생들에게 벤처자본과 사모펀드 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 자본가들과의 접촉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워크숍, 초청강연, 그리고 벤처캐피탈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http://web.mit.edu/tlo>).

또한 MIT대학 창업동아리 모임은 ‘슬로안 경영대학’ 내에서도 재학생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MIT 슬로안 경영대학 내에는 60여 개의 동아리 모임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신규 창업과 관련하여 6~7개의 동아리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래 <표 5-3> 참조).

<표 5-3> MIT 슬로안 경영대학의 창업 관련 동아리 모임

단체명	주요 활동 내용	비 고
창업정신과 혁신동아리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참여기회 제공: 아이디어스톱, 창업인턴십, 지역창업 트랙, 강연과 워크숍, 사회적 이벤트	

<표 계속>

단체명	주요 활동 내용	비고
MIT 슬로안 투자경영 동아리	투자분석 기술 개발 및 산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MIT 슬로안 마케팅 동아리	마케팅에 대한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문과 산업계 지도자들에 대한 접근 기회 제공	
MIT 창업정신 리뷰	학생들이 자체 운영하는 과학, 기술, 그리고 창업정신의 교차점에 관해 조사 발표하는 온라인 출판 모임: 신규 창업(Start-up) 자문 제공	miter.mit.edu
MIT 슬로안 테크 동아리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정보 학습 제공 및 동 분야에 대한 상호교류 및 동문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제공: 실리콘밸리, 시애틀, 그리고 매사추세츠 소재 하이테크 기업 방문	
슬로안 국제개발 창업가 동아리(SEID)	슬로안 재학생과 개발도상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가와 회사와의 연계기회 제공: SEID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학생들에 의해 주도	

자료: MIT 슬로안 학생동아리(mitsloan.mit.edu)

MIT 대학은 재학생들의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마틴 트러스트 MIT 창업센터’(Martin Trust Center for MIT Entrepreneurship)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초빙 창업가’(Entrepreneurs in Residence, EIR) 네트워크는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MIT 학생들에게 현재 창업아이디어에 맞는 단계별 조언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상담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있다.

이들 ‘대학 초빙 창업가’ 네트워크 상담자들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먼저 각자 자신들의 특정 분야에서 확고한 경력을 갖고 있는 고경력 기업가와 전문가 그룹(Gurus), 신규 창업한 지 이 몇 년 정도 된

기업가들(Coaches), 그리고 단지 신규 기업 창립 초기 단계를 마친 재학생과 최근 졸업생들로 구성된 동료 그룹(Peer-to-Peer)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3단계 접근은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상담해 줄 수 있는 창업가(EIR)를 연결시켜 주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EIR 프로그램은 현재 모든 MIT 재학생이 이용 가능하다. 또한 EIR 프로그램은 재학생들을 외부 상담자 및 자원들과 신속하게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MIT 대학은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특정 멘토 팀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벤처 멘토링 서비스(VMS)를 제공하고 있다(<http://web.mit.edu/vms/>).

MIT 대학은 매년 재학생들의 창업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창업 관련 경진대회(\$100K Entrepreneurship Competition)를 개최하고 있다. 매년 봄에 실시되는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빠른 자기소개(elevator pitch) 경진대회, 그리고 사업개요(Executive Summary)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들은 기업 경험의 다양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멘토에 의해 잘 준비된 사업계획서들의 최종 경연은 경험이 많은 기업가, 벤처 자본가,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 의해 심사된다. 이러한 사업계획서 경진대회는 지난 20년 동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120여 개 이상의 신규 창업이 이루어졌다(<http://www.mit100k.org/>).

레벌슨-MIT 프로그램도 매년 발명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MIT 학부 4년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발명과 혁신을 돕기 위해 3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한 뛰

어난 중견 발명가에게 주는 50만 달러의 상금과 지역사회 및 지구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발명가에게 지급되는 지속발전 가능성을 위한 10만 달러의 상금도 지급하고 있다(<http://web.mit.edu/invent/>).

이 밖에 MIT 기업포럼은 지난 30년 이상 기술 창업에 관한 네트워킹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케임브리지 소재 MIT 기업포럼 등과 같은 동 포럼의 많은 지역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MIT 기업포럼에서는 ‘창업과 콘셉트 클리닉’을 운영함으로써 초기 단계의 기술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www.mitenterpriseforum.org](http://www.mitenterpriseforum.org)).

### 3. 미국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평가

스탠포드 대학과 MIT 대학이 새로운 기술혁신과 창업의 산실이 되고 있는 배경에는 두 대학 모두 풍부한 창업생태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두 대학의 창업생태계는 공통적으로 우수한 창업인재, 벤처금융과 전문가적 지원, 그리고 창업과정 학제 간 융합 교육 프로그램과 기술이전조직(TLO) 등과 같은 각종 창업 관련 지원 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대부분의 대학도 스탠포드 대학과 MIT 대학의 사례처럼 대학 내 창업동아리 활동과 신규 기업 설립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미국 대학 내의 신규 창업을 위한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운과 칸트는 바이오 창업동아리 모임을 사례로

이들 조직들이 바이오 창업가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Brown & Kant, 2008). 브라운과 칸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대학 창업동아리들은 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연구중심대학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신규 창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대부분의 창업동아리들은 공통적으로 바이오 정보에 관한 세미나 시리즈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많은 창업동아리 활동은 패널 토론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많은 창업동아리 모임에서 지역의 특성과 조직 운영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바이오 워크숍, 창업포럼, 심포지엄,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경력 개발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 컨설팅, 벤처 프로그램, 투자그룹 초청, 캠퍼스 밖 지역 방문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레터, 리뷰지의 발간까지 대학마다 특성화된 창업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창업생태계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 위치한 대학일수록 더 많은 창업관련 프로그램과 함께 각종 행사를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여기서 각종 네트워킹 이벤트들은 경험이 풍부한 기업가들을 특별히 포함시킴으로써 신규 창업의 실패와 성공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브라운과 칸트는 그동안의 활동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이 창업 단계별로 체계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주요 대학들의 창업 관련 프로그램

과 창업동아리 모임이 학생들에게 창업가가 되기 위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rown and Kant, 2008). 예컨대 미국의 바이오메디컬 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동아리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창업지식 측면에서 탐색과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창업동아리들은 고급 단계에 속한 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급 단계의 창업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은 각 학생 창업동아리에게 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각 창업지식 단계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발한 창업동아리 모임은 폭넓은 창업 생태계를 창출하는 데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Brown & Kant, 2008).

## 제2절 핀란드 알토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핀란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제1위의 휴대폰 제조사인 노키아가 스마트폰 열풍에 밀리며 1만여 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헬싱키의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로비오(Rovio), 슈퍼셀(Supercell) 등 청년 창업 기업들이 세계 모바일 게임시장을 장악하면서 핀란드는 지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슈퍼셀은 불과 2년여 만에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였는데, 설립자

가 2010년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새로 설립된 알토(Aalto)대학 출신이다. 로비오의 경우에도 알토대학이 위치한 에스푸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알토대학 창업동아리인 알토스 내에는 두 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로비오와 슈퍼셀을 중심으로 핀란드는 IT 제조에서 모바일 게임 등 창조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로비오, 슈퍼셀 등 청년창업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핀란드의 학생과 대학,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 등 각 주체들이 창조경제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창조경제 정책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둔 핀란드의 청년창업 사례를 알토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알토대학과 알토 창업동아리

핀란드 정부는 2010년 초 헬싱키공과대학(TKK),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TaiK), 헬싱키경제학대학(HSE) 등 3개 국립대학을 통합하여 알토대학이라는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였다. 3개 국립대학 통합 프로젝트는 수년에 걸친 작업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3개 국립대학이 아트디자인, 공학, 경영학 등 3개 분야로 이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처음부터 알토대학 설립이 다학제적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박동 외, 2010).

알토대학이 공식 출범하기 이전인 2009년에 ‘알토 창업동아리’(Aalto

Entrepreneurship Society)가 설립되었다. 알토대학의 설립은 중앙정부와 각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 산업체 등의 사전 조율을 거쳐 장기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학 설립 이전에 알토 창업동아리의 설립이 가능하였다. 설립 초기만 해도 알토스는 참여 학생 수나 모든 측면에서 초라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www.aaltoes.com).

그러나 설립한 지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지금 알토스는 유럽 최대의 청년 창업동아리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그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중국에 알토스 모델이 전수되기도 하였다(www.aaltoes.fi).

알토대학에는 본격적인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하지 못한 다수의 학생들을 위해 크게 두 단계에 걸친 학생창업 관련 공간이 존재한다.

하나는 알토 디자인팩토리(Designfactory)이다. 디자인팩토리는 다학제적 팀 구성을 위한 동아리 전 단계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 교수, 산업체 인사, 연구원 등이 강의와 실습을 중심으로 아이디어 발굴에 주력하는 일종의 공용공간이다.

다른 하나는 알토스의 전용공간인 벤처개러지(venture garage)이다. 벤처개러지에는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은 팀들이 입주하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알토스가 수행하고 있는 일들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알토스 토크(Aaltoes Talks)가 있다. 알토스 토크는 학생과 연구자 그리고 창업에 관심이 있는 누구에게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알토스 트립(Aaltoes Trips)이 있는데, 알토스 트립은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해외 견학을 보냄으로써 세계에 도전하고 세계를 발견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

제로 많은 학생들이 청년창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미국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주요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 라이프 인턴 연구원, 그리고 스타트업 사우나(Startup Sauna), 여름 새싹창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창업회의인 슬러시, 새싹창업 지원을 위한 시리즈시드, 창업 실패 경험담을 공유하는 실패의 날(Fail Day),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창업 지도교수인 스티브 블랭크의 창업교육 주간인 스티브 블랭크 위크 등 다양한 창업친화 프로젝트들이 존재한다(Aaltoes, 2012).

알토스에서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은 북유럽 최고의 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트업 사우나는 다음의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www.aaltoes.com](http://www.aaltoes.com)).

첫째, 스타트업 사우나 인턴십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이는 알토대학 졸업자들이 헬싱키나 실리콘밸리 등의 고성장 산업체들에서 인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60명 이상의 인턴이 실제 고용으로 연결되었다.

동 인턴십 프로그램은 재능을 가진 개인들이 핀란드에서 가장 유망한 창업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헬싱키 지역의 창업기업들로부터 공학, 비즈니스, 디자인 등의 일자리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창업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핀란드의 주도적인 창업가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

창업은 항상 서둘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창업기업에서 일함으로써 긴급성에 대한 감각을 더욱 더 심도 있게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착수하고 완결함으로써 항해를 할 능력을 배우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관료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빠르고 두려움 없는 실행은 대기업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체험이 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하고 열정적이며 능력 있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고, 창업기업에서는 누구나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책을 맡을 수도 있다. 또한 창업기업에 근무함으로써 무엇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은 북유럽과 러시아의 초기 단계 창업기업들을 위한 것으로서, 창업기업들은 헬싱키에서 심도 있는 1개월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많은 창업가와 투자자들의 코칭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유망한 초기 단계 창업기업들이 목표로 하는 시장으로 진입하거나 투자자금을 충당하는 등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다.

코치들은 지역 내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춘 창업가, 투자자, 여타의 전문가들로서, 신생 창업기업들이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90개의 기업들이 동 프로그램을 경유하였으며, 이들이 모금한 기금은 2천만 유로에 달한다([www.aaltoes.com](http://www.aaltoes.com)).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은 봄과 가을에 조직되는데,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스타트업 사우나 위밍업은 북유럽과 러시아의 주도적 창업 도시들에서 조직된 하루 동안의 코칭 면담을 말한다. 둘

째,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은 선발된 15개 팀을 대상으로 4~6주 동안 집중적으로 코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팀은 동 프로그램 기간 동안 풀타임으로 참여해야 한다. 각각의 프로그램 종결 시 유럽 전역에서 온 투자자들과 데모데이(Demo Day)를 갖는다. 셋째, 스타트업 사우나 실리콘밸리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팀들에게 실리콘밸리로 가서 투자자, 고객, 경쟁기업, 그리고 미디어를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셋째,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은 2일간의 창업회의인 슬러시(SLUSH) 개최를 통해, 창업생태계에 있어서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들이 지역의 최고위층 벤처투자자들 및 세계 전역의 미디어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준다. 2012년 슬러시 회의는 헬싱키에서 2일간 개최되었는데, 3,500명 이상의 참석자, 550개의 기업, 250명의 투자자, 언론인 등이 참석하였다([www.aaltoes.com](http://www.aaltoes.com)).

알토 창업동아리의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스타트업 사우나는 에스푸의 알토대학 캠퍼스에 설립된 공동작업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알토대학은 알토 창업동아리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알토 벤처 프로그램(AVP)을 설치하였다. 동 프로그램은 알토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AVP 교육과정은 모든 알토대학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다. 동 교육과정은 석사 수준의 부전공 또는 개별 코스로 수강 가능하다.

AVP에서 학생들은 경험 많은 전문가 그리고 다양한 배경과 국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수의 학생들은 새로운 벤처를 시작하고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길거리 지성과 창업가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이같은 AVP는 알토대학의 창업공동체를 구성하는 알토스와 스타트업 사우나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으며 운영되고 있다. 더구나 AVP는 ‘스텐포드 기술벤처 프로그램’(STVP)과 협조관계를 맺으며 개발되고 있다([www.aaltoes.com](http://www.aaltoes.com)).

## 2. 알토대학 청년창업 성공사례

핀란드는 현재 노키아에서 2013년 말까지 1만여 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커다란 고용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노키아는 핀란드 경제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할 정도로 거대기업이었다. 이러한 거대기업의 핀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계획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핀란드는 노키아의 충격을 오락, 게임, 콘텐츠 등 창조산업의 부흥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 선두주자는 바로 앵그리 버드(Angry Birds)로 유명한 로비오(ROVIO)와 클래시 오브 클랜(Clash of Clans)과 헤이데이(Hay Day)로 급부상한 슈퍼셀(Supercell)이다. 모바일 게임업체인 로비오와 슈퍼셀은 모두 알토대학이 위치한 에스푸에서 청년들에 의해 창업되었으며, 슈퍼셀의 창업주는 실제로 알토대학 출신이다([www.rovio.com](http://www.rovio.com); [www.supercell.net](http://www.supercell.net)).

로비오와 슈퍼셀의 성공은 알토스를 세계적 창업동아리의 반열로 올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키아의 급격한 위축과 새로운 창업기업의 급부상은 모두 스마트폰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노키아는 휴대폰 제조업에 자족하고 있었던 반면, 청년창업 기업에 불과했던 두 기업은 스마트폰 시장의 변

화를 잘 활용하여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

먼저,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로비오는 마이클 헤드, 니클라스 헤드, 피터 베스터바카<sup>9)</sup> 등 3명이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이다. 2003년 노키아와 HP가 공동 주최한 게임개발 대회에서 니클라스 헤드가 우승하면서 창업을 한 것이 로비오의 본격적 창업 계기가 되었다. 이후 마이클 헤드가 CEO 역할을 맡고 피터 베스터바카가 합류하면서 로비오는 청년창업 성공의 세계적 아이콘으로 성장하게 된다.

로비오 엔터테인먼트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애플사가 2009년 12월 아이폰 버전을 출시하면서부터이다. 즉,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앵그리버드<sup>10)</sup> 게임을 출시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게임 다운로드가 폭주하면서 일약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현재는 모바일 게임 성공에 이어 오락, 모바일 게임 배급, 라이선싱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로비오 본사는 알토대학이 위치한 에스푸에 입주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5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있다. 2012년 매출은 1억 5,220만 유로로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www.rovio.com).

로비오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스마트폰의 출시와 동시에 앱스토어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당시 여러 나라에서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활용한 창작물들이 등장하였지만 로비오만큼 장기 지속적인 창작물을 창조하지는 못하였다. 로비오는 또한 공개적 조직

9) 베스터바카는 알토스에 방문하여 로비오 창업과 관련한 각종 경험담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으며, 학생창업에 대한 엔젤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10) 새들이 화난 이유는 돼지들이 새들의 알을 빼앗아 먹어 버렸기 때문이다. 새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인 돼지들을 공격한다. 새총을 쏘는 등 게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료 다운로드 수 6억 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www.rovio.com).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www.rovio.com). 즉, 새로운 아이디어와 제안을 언제든지 수용하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집합적 창조성에 입각한 창조군단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슈퍼셀 역시 로비오와 같은 모바일 게임업체이다. 현재 클래시 오브 클랜과 헤이데이 두 게임으로 미국의 앱스토어 매출 순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창업한 이후 2012년에 매출 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1/4분기에만 1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해 2013년에는 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2013년 4월 17일자 기사에서 슈퍼셀이 사상 최고 속도로 성장하는 게임회사라는 평을 하고 있다(www.forbes.com).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슈퍼셀의 대표인 34세의 일카 파나넨은 “모바일 게임에서 돈을 벌려면 돈 버는 것을 잊어버리고 흥미(fun)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다. ‘흥미’(fun)는 알토대학의 디자인팩토리에서 내걸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다. 즉 ‘신명이 나지 않고서는 혁신도 있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돈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흥미보다 수익창출을 앞세울 경우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슈퍼셀에서는 대부분의 게임 스튜디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관료적 위계질서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관료적 위계질서가 강한 곳에서는 ‘조직적 침묵’이 구성원들의 지배적인 대응방식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Morrison and Milliken, 2000). 이와 달리 슈퍼셀은 세포처럼 5~6명으로 구성된 조그만 팀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이나 헤이데이는 모두 이러한 소규모 팀 단위의

개발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게임들이다. 각각의 팀들은 어떠한 위계구조나 관료적 요소도 배제된 상태에서 절대적 자유를 향유한다. 이에 따라 슈퍼셀은 “작게 생각하라”(Think Small)를 회사의 가장 중요한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다(www.supercell.net).

게임 산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최고의 비결은 작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슈퍼셀 경영진들의 생각이다. 미친 듯이 일하고 재능이 있으며, 창조적인 사람들, 무제한의 자유, 위대한 팀들의 화학적 결합에 의해 오늘날의 슈퍼셀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슈퍼셀은 집합적 창조성이 발양되는 데에는 거대 집단보다는 소규모 집단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슈퍼셀의 공동대표인 일카 파나넨(Ilkka Paananen)은 2011년 알토대학에서 도입한 알토 벤처 프로그램(AVP)에 참여하여 동아리 학생들에게 청년창업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다.

### 3. 핀란드 알토동아리 사례의 평가

핀란드는 학생, 대학, 산업체, 정부,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단기간에 아이디어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다. 알토대학이 설립된 2010년만 해도 알토 창업동아리는 왜소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불과 3년여가 지난 지금 알토대학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핵심적 요소들을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추고 있다. 알토대학의 성공에서는 알토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창조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토대학은 스타트업 사우나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학생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스타트업 사  
우나는 고성장 하이테크 창업기업 인턴제, 유능한 창업가 또는 투자자  
들의 장기간에 걸친 코칭, 해외 선진사례 견학, 세계적 창업회의 개최  
등을 통해 청년들이 실전상황에 걸맞은 능력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각  
을 갖추도록 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거듭된 실패를 통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  
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알토 창업동아리에서는 ‘실패  
의날’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패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  
고 이를 축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패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슈퍼셀의 최고경영자 겸 공동설립자인 일카 파나넨이 표현하  
듯 “실패 그 자체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얻은 귀한 교  
훈을 축하”하는 것이다([www.forbes.com](http://www.forbes.com)).

핀란드의 성공한 청년창업 기업인 로비오와 슈퍼셀에서는 집합적  
창조성을 발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두 기업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특정 개인의 역  
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 공동창업 방식을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팀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최근의 청년창업이 개인 창업이 아니라 팀  
창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로비오의 경우 개방성을 통해 내·외부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흡수  
하는 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슈퍼셀은 소그룹 단위 세포조직의 자율  
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단위조직 내에서의 집합적 창조성을 극대  
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제3절 국내 대학 창업동아리 사례

국내의 여러 대학들이 청년창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정부에서는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이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창업을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을 필두로 정부 부처들에서는 청년창업을 위한 다양한 대학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창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학생창업에 대한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고 심지어 학생창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기까지 하다. 특히 학교 당국은 물론이고 다수의 교수, 학부모들까지도 청년창업을 위협스러운 일로 간주하고 있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2012년 8월 기준으로 학생창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동아리가 설립되어 있는 학교는 50%가 채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업기피 여건 속에서도 청년창업에 대해 꾸준한 투자를 실시하고, 학생들을 위한 창업 전용공간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있다. 여기서는 충남 아산에 소재한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창업동아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 사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이나 핀란드 등 청년창업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도 학생창업이 청년고용의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에 소재한 호서대학교에서는 학생창업을 위한 전용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는 등 여타 대학들의 사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청년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호서대학교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sup>11)</sup>

호서대는 우리나라가 국가 전체적으로 창업생태계가 미비한 조건 속에서 독자적으로 학내 창업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벤처창업 교육에서부터 학생창업보육센터, 신기술창업보육센터(TBI), ‘창업보육 이후’(Post-BI) 벤처기업 육성 등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호서대학교의 순환형 학생창업 지원 시스템 개념도



먼저, 벤처창업 예비교육은 벤처창업 실무교육, 기업현장 실무교육, 창의적 종합설계 교과목, 창의적 인력양성 프로그램(CLP)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1)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 사례는 2013년 현재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구경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호서대 사례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동 센터 내부자료에 근거하였다.

여기서 벤처창업 실무교육은 벤처산업공학 교육과정, 벤처창업강좌, 창업 기업인 초청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벤처산업공학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부 2학년부터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래의 <표 5-4>는 현재 호서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벤처산업공학 전공에 개설된 교과과정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5-4> 호서대학교의 벤처산업공학 전공 개설 교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
2	1	벤처기술개론 I, 벤처기업총론
	2	벤처기술개론 II, 기업가 정신, 벤처창업의 이해, 창업과 기업가 정신
3	1	첨단기술정보, 벤처마케팅
	2	하이테크 기술과 첨단상품, 벤처캐피탈
4	1	벤처아이디어 개발전략, 벤처기술경제론
	2	벤처기술 창업세미나, 벤처창업 실무

기업현장 실무교육은 현장실습과 기업지도형 산학동아리 운영으로 이루어진다. 현장실습은 산업체 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규 교과목으로 인정되고 있다. 기업지도형 산학동아리는 지도교수와 산업체 관계자가 공동으로 학생의 기술개발 및 제품개발을 지도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상용화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창업정신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창의적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아래의 <표 5-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참여형, 학생창작형, 다학제형, 현장실습연계형 등 다양한 과제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과제공모 또는 교과목화,

현장실습과의 연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모집한다. 이러한 캡스톤 디자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생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제품개발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표 5-5〉 대안적 캡스톤디자인 모델 운영

과제유형	모집유형	과제특징
기업참여형	과제공모	· 기업참여에 의한 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전공 설계 학습에 기업의 실무기술을 연계 · 최신 실무기술의 습득 및 현장학습 기회 제공
학생창작형	교과목화	· 순수 학생 창작형 과정으로 학생의 창의적 사고와 실무능력의 연계 기회 제공
다학제형	과제공모	· 2개 이상의 학과에 의한 융합형 기술 도출 · 복합 팀제하에서의 팀워크 능력 향상
설계교과 연계	교과목 지원	· 코스형: 전 교과목 대상 지원 프로그램이었으나, 과제공모 형태를 띠고 운영되어 활성화되지 못함. · 입문 및 요소 설계 관련 교과목 대상 지원을 통한 설계교육 활성화
현장실습 연계형	현장실습 연계	· 방학중 산업체 주문형 합숙 프로젝트 및 현장실습과정을 캡스톤디자인과 연계하여 운영 · 결과물의 특허 및 상품화
다학년 (다학제) 참여형	과제공모	· 1~4학년 공동 참여형 다년간 프로그램으로 설계교육의 연속성 확보 · 동일 설계주제의 연속적 운영으로 작품의 완성도 확보 · 기업참여 유도를 통한 결과물의 특허 및 상품화
해외 인턴십 연계형	인턴십 연계	· 해외 인턴십 이수학생의 글로벌 캡스톤디자인 · 인턴십 기간 과제 도출 후 국내 복귀하여 과제 수행 · 해외 인턴십 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인터넷 공동작업

끝으로 창의적 인력양성 프로그램(CLP)은 2개 이상의 상이한 전공의 학생들이 다학제적 융합을 통해 집합적 창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과과정이다. 여기서는 2개월 과정의 해외 인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나름대로 창업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의지를 갖추고,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창업동아리를 결성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동 센터에서 지도교수의 멘토링을 받으며 본격적인 연구개발과 벤처창업에 매진하도록 하고 있다.

호서대학교의 학생창업 모델의 특징은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생 전용공간과 소정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호서대는 1999년도에 국내 최초로 벤처동아리를 모집해서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 학생창업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 5-2]와 같은 학생 전용의 학생창업보육센터(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631평, 1999년 8월 준공)를 운영하고 있다.

[그림 5-2]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 전경 및 동아리실 내부



2013년에는 학생들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 교육연구동과 기숙사 사이의 산학협력관을 리모델링(학생벤처창업관: 연면적 112평, 입주공간 77평)하여 이전하였다([그림 5-3]). 이전된 시설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늦은 생활관으로의 복귀와 잦은 밤샘 작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에 근접하고, 벤처집적지구 내 TBI 입주기업인들과의 교류(원활한 멘토·멘티 활동 등)와 공장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동과의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한편 야간활동을 감안하여 내부에 각종 자판기 등 편의시설과 다양한 회의시설 등을 추가하여 동아리 간 협력 및 창의성 발현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5-3] 학생벤처창업관 전경 및 실내, 동아리실 내부



학생창업보육센터는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우수성을 평가하여 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우수동아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 동아리에는 지도교수가 배치되어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학생동아리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동아리 결성 및 운영, 벤처창업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5-4] 참조). 최근에 달라진 점은 시제품제작센터를 통한 설비활용 지원, 수요예산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림 5-4] 호서대 학생창업보육센터의 종합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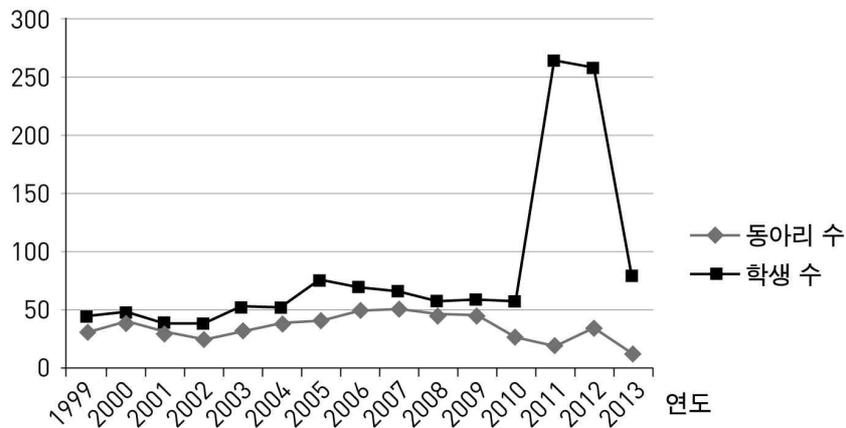
아래의 <표 5-6>은 2013년 6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창업동아리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분야가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제조업 분야라고 하더라도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을 둔 창업동아리가 대부분이다.

<표 5-6> 호서대학교 창업동아리 현황(2013년 6월 기준)

No.	호실	동아리명	창업아이템명	아이템업종	학과
1	202	Red Bull	친환경 에너지 절약 에코 스위치	제조	정보통신학과
2	203	드림콕	온도에 따라 변하는 이어캡	제조	컴퓨터공학과
3	204	Real White	투과율 계측기	제조	국방과학기술학과
4	205	Lv	아세톤 물티슈	제조	체육학과
5	206	Leo	대학기관의 학생 타기팅 문자 자동 발송 시스템 개발	지식 서비스	게임공학과
6	207	G.G.V.	무기물질 첨가형 내열성 내장재	제조	안전보건학과
7	208	DM_Soluth	과학으로 떠나는 여행(교육앱)	지식 서비스	게임공학과
8	209	SOAPY	상업 콘텐츠 제작 (APP+캐릭터 상품)	지식 서비스	애니메이션학과
9	210	아트 인모션	웹툰, 플레이툰(무빙웹)을 이용한 멀티 유스 산업	지식 서비스	애니메이션학과
10	211	Green Factory	Kentuckylue Grass (골프용 잔디)	제조	골프학과
11	1공 429	FREEZE	위조지폐식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지식 서비스	국방과학기술학과
12	동서울대	심스	노인 향수	제조	제조
13	안서동	STUDIO DEMON	웹툰	지식 서비스	지식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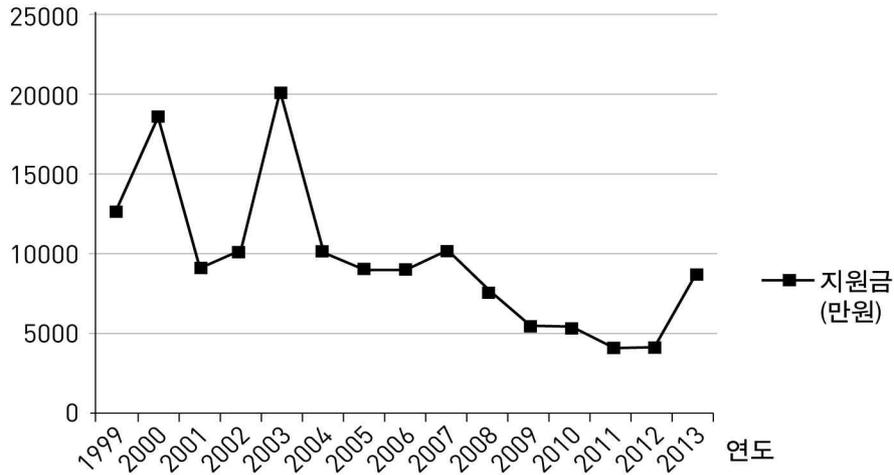
1999년 이후 창업동아리 수는 50개 미만을 유지해 왔다. 그리고 학생 수도 2010년까지는 100명 미만을 유지해 왔으나, 아래 [그림 5-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1년과 2012년에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동아리의 성공 사례가 밑바탕이 되어 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의 도전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3년에는 동아리의 양적인 확대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질적인 관리로의 변화를 모색한 결과 참여 학생 수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5] 호서대의 연도별 창업동아리 및 참여 학생 수 추이



동아리 참여 학생 수와 동아리 수가 모두 줄어들었지만 동아리 지원금은 2013년에 오히려 증가하였다([그림 5-6] 참조). 이는 실적이 부족한 동아리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총 13개 학과(부)의 경쟁력 있는 우수동아리만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5-6] 호서대의 연도별 창업동아리 지원금 추이



현재 호서대에서는 스타트업 프런티어 다학제적 창업팀을 통해 동아리 운영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제품개발 및 재료구입, 기술지도 등 창업 준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칭 캠프를 통해 동아리 구성, 아이템 선정, 기업가 정신 함양 등 아이디어에서 실전창업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창업동아리는 학생창업보육센터의 정식 동아리로 인정되며, 사업화 지원금, 창업경영실습 운영 및 실습비, 창업 동아리실(10실), 추후 스타트업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해외 연수 지원, 기타 창업선도대학의 모든 프로그램 참여 우선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2. 호서대학교의 청년창업 성공사례

호서대학교가 우수한 학생창업 성공사례를 배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생창업을 위한 생태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생창업 생태계에 기반을 두고 공간 제공만이 아니라 적은 금액이지만 금전적 지원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창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갖추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열심히 하면 지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퇴출시키는 등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이종 분야의 학생들이 뒤섞여 집단적 창조활동에 종사하도록 한 것이 창업활동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호서대학교는 앞으로 학생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이공계 학생만이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도 동참하도록 다학제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멘토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에서는 산업체 경력이 풍부한 교수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다수의 교수들이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창업보육센터에서의 일들이 모두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호서대학교의 학생창업보육센터 멘토교수들에 대한 집중면접 결과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첫째, 학생창업의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과 둘째, 멘토교수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먼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를 펼쳐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금전적 지원도 병행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교비 지

원 대비 성과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학생창업의 성공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한 것인가 하는 것조차 분명치 않다. 이는 비단 호서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학생창업을 추진하는 모든 대학과 정부부처 모두가 공유해야만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LINC 사업 등에서의 성공의 기준을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입각하면 학생창업의 성공사례는 거의 나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년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유지되듯이 학생창업교육에 있어서는 경험을 충분히 쌓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성과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패도 얼마든지 성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패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성과로 계량화하는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계량적 수치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경험을 통해 취업률 또는 회사기여율 등 사회에서의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창업교육의 목표가 학생시절에 창업을 성공시키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경험 축적에 의해 미래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창업 멘토교수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호서대학교의 경우에도 대학에서 학생창업을 지도하는 멘토교수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서 멘토를 기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수의 업적평가 등에서 학생창업 지도 활동을 반영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멘토 지도교수에 의해 기술지도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생

창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다. 아이디어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유능한 창업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생창업을 지도하는 전문 멘토단을 구성해서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수가 학생들에게 기술멘토를 할 수는 있으나 e-biz 창업 지원 프로그램 사이트에 가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한 실정이다. 더구나 법원, 등기소 등에 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처음 학생창업을 하면 시장에 나가서 사기도 당하고 별의별 일을 경험하는데, 학생창업에 대한 행정지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 회계 등 재무교육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 이에 따라 멘토의 역할을 세분화하여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즉, 교수는 기술멘토로서 학교 단계에서의 활동에 주력하고, 창업실무 멘토를 하는 별도의 행정멘토가 필요하며, 시장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는 마케팅 멘토단도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학생창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창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설계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창업의 성과목표를 잘 설정하고 금융, 세제, 마케팅, 공인인증기관 모두가 학생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잘 갖추는 일이 앞으로 학생창업의 성공모델을 배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호서대학교의 학생창업보육센터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우수한 청년창업 성공사례들을 배출해 내고 있다. 여기서는 교육부가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 매출액과 멘토교수의 지도라는 두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호서대 상주동아리 중 매년 실시되는 우수동아리 평가에서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되어 결국 창업에 이른 박희열 학생(동아리명: 모모트)의 청년창업 성공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현재 박 대표는 모모트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AK 백화점 전시 및 판매와 함께 나이키, 후지제록스, NC SOFT, SK MMC, 무한도전, YG엔터테인먼트, 밀레21, M.net 등과 콜라보레이션 및 캐릭터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최근 디즈니와 연 10억 원의 계약을 맺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공사례 내용은 아래에 별도로 제시하였다.

#### 호서대 청년 창업동아리 모모트 성공사례

(주)모모트(momot.co.kr)의 박희열 대표는 호서대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상주하여 청년창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모모트는 종이장난감으로 ‘네모 네모 로봇’(NEMO NEMO ROBOT)를 약칭하여 붙인 이름이다. 모모트는 종이에 새겨진 대로 뜯고 접고 붙이면서 만드는 네모난 종이 로봇의 브랜드 명칭을 가리키는데, 시장의 반응이 뜨겁다. 박 대표가 종이로봇을 만든 이유는 그래픽에 한계가 없고, 창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이는 다른 재료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누구나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모모트는 박 대표를 비롯해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의 선배들이 서로 협력하여 만든 작품이다. 모모트 동아리는 처음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로 출발하였다.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상품으로 발전하기까지는 호서대 학생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컸다. 무엇보다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이후 동일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상시적으로 모아 나갈 수 있었고, 학생 신분으로 항상 부족한 창업자금 중 일부를 지원받게 되면서 창업활동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창업동아리에서의 수많은 토론과 밤샘을 거쳐 모모트는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기에 이른다. 2009년 창업한 이후 3년 만에 연 매출 10억 원에 직원 10명을 보유한 어엿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다. 박 대표는 “학생창업보육센터에서의 동아리 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모모트는 존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동아리 활동은 수많은 비용을 줄여주고 구성원 간의 협력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교수님들의 지도에 따라 열정 하나로 버텨 왔다”고 말한다.

현재 모모트는 서울 강남에 30평 규모의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디즈니사를 비롯한 다양한 업체들과 글로벌 사업을 기획 중에 있다. 디즈니 자회사 마블코믹스의 ‘어벤저스’ 캐릭터를 종이인형으로 만들어 국내에 판매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디즈니의 다른 캐릭터를 종이인형으로 만들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모모트의 가장 큰 장점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기상천외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도 모모트의 창립 멤버들은 동아리 활동 시기의 경험을 떠올리며 한국의 레고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 3. 호서대학교 학생창업보육센터 사례의 평가

호서대학교의 학생창업보육센터는 국내 다른 대학에서 유례가 없는 체계적인 교육모델과 운영 프로그램으로 청년창업 의욕을 고취하고 있다. 특히 학생 전용의 창업동아리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사이의 집합적 창조성을 발양시키는 데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학의 실험실에서 바로 창업이 가능한 스웨덴, 핀란드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기술 및 재정 지원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 등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투자자와 같은 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대학의 지원만으로는 대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체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기술의 융·복합화 및 기술발전의 가속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학제 간 융·복합 동아리 운영이 필요하지만 개별 대학 차원에서 이에 따른 막대한 재정소요를 감당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청년창업은 롤모델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성공적인 모델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모델의 성공 및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미래 가능성이 높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창업정신이 강한 학생들을 참여시켜 기반투자를 하는 등 대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큰 재정적 두려움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호서대와 같이 학교가 의지를 갖고 학생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 차원에

서 보다 적극적으로 창업동아리 지원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청년창업을 위한 하드웨어를 충분히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만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학생 및 연구원들을 위한 민간 부문의 재정 지원 방안 마련도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어 벤처캐피탈을 설립하거나 클라우드 펀딩 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학생 창업동아리를 통한 청년지식기업 육성과 자금회수라는 벤처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현재의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개선하는 데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제4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분석

국내외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우리의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과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 내 창업동아리 활동과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창업지식 단계에 맞는 창업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동시에 기발한 창업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상담과 지도 과정을 거침으로써 창업기업으로 진화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학 내 창업생태계(entrepreneurial ecosystem)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MIT 대학의 경우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

을 성공한 창업가 또는 투자자들과 연계시켜 성공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 중이다. 핀란드 알토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아이디어 숙성 및 창업동아리의 진화 단계에 맞추어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있다. 국내 호서대의 경우에도 창업교육에서부터 창업동아리, 창업보육, 창업보육 이후 단계 등 전 단계에 걸쳐 나름대로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창업동아리 공간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 주도의 전용 온-오프(on-off) 공간을 대학 내에 제공함으로써 학제 간 상호 소통과 융합 과정에서 혁신과 ‘집합적 창조성’(collective creativity)이 발휘되고, 나아가 청년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이 실제 신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점 이수와 창업에 대한 지식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정규 교육 프로그램 신설이 요구된다. 특히 실패를 새로운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살아 있는 경험에 입각한 창업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MIT 대학의 경우 ‘스탠포드 기술벤처 프로그램’(STVP) 및 ‘대학 초빙 창업가’(EIR) 네트워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체와 직접 연계된 생생한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 알토대학에서도 최근 미국의 STVP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알토 벤처 프로그램(AVP)을 진행하고 있다. 호서대의 경우에도 학생

들의 창업마인드를 고취시키기 위해 산업체와 연계된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들을 정규 교과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산업체와 연계된 방식으로 창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성공사례가 적기 때문에 생생하고 긴박감 있는 체험교육이 실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대학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학생들 사이의 집단적 창조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동아리 조직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창조경제 시대에서 청년창업은 개인창업이라기보다 다학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공동창업 또는 팀 창업이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창업하여 성공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MIT 대학에서 창업동아리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지식창업에 필수적인 팀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의 대부분의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은 다학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알토스는 설립 초기부터 이질적 학문 분야의 학생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국내의 호서대도 최근 다학제적 창업팀 구성을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 창업동아리는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기 쉬운 공과계열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최근 들어 산학협력 사업에서 인문·사회계열도 포함시키면서 이들과 이공계 학생들 사이의 새로운 융합을 모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융합 지원 프로그램

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청년창업은 단지 아이템과 기술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케팅, 재무회계 등이며, 특히 팀 창업에 필요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이종 분야 학생들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들의 지식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창업동아리에 대한 멘토링 및 컨설팅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가 새롭고 유용한 상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창업동아리 내부에서의 학습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지도교수, 학내외 전문가, 성공한 기업가, 투자자 등의 다양한 멘토링과 컨설팅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SEN을 중심으로 전문 멘토링 프로그램인 코치스온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한 멘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MIT 대학은 EIR 프로그램, VM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창업 준비자들이 멘토그룹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핀란드의 알토 창업동아리는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업기업 인턴십, 1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코칭, 창업회의 등을 통해 청년창업가들과 전문 멘토단과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호서대에서도 동아리 지도교수 및 BI 매니저, 내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멘토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멘토십은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기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창업선도대학 사업이나 LINC 사업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멘토

교수나 멘토 전문가들에게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최근 미래부에서 벤처 1세대들의 창업경험을 전수하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지만,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다섯째, 대학 내 창업동아리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창업동아리 아 이템에 새로움과 유용성을 부가하기 위한 각종 경진대회 및 이벤트 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베이스스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서 경진대회, 발명품 공개품평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MIT 대학에서는 사업계획서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피치, 사업개요 경진대회 등 실전 적응력을 테스트하는 각종 경진대회를 실행하고 있다. 특히 MIT 대학에서는 레벌슨-MIT 프로그램을 통해 발명가 대회를 개최하여 수만 달러의 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창업으로 연결된 성공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창업경진대회는 창업동아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학 창업동아리의 신생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 지역사회 내 기업가, 전문가, 그리고 벤처자본 투자자 사이의 긴밀한 네트워킹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창업동아리 활동 중 스탠포드 대학의 SVCC나 MIT 대학의 기업포럼 등은 벤처투자자의 폭넓은 지원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 또한 핀란드 알토 창업동아리에서는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예비창업자들을 벤처투자자 및 언론인과 연계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창업생태계가 취약하고, 이에 따라 창업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정부와 벤처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없이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이 신규 창업 실패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감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서 투자자금을 모으는 클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4월 신생기업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육성법(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에 서명한 이후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제6장

#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제2절 대학 차원의 정책과제



## 제6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박 동

이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창업은 조기에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집합적 창조성을 제고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창업은 곧 창업동아리를 통한 팀 활동의 결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 지식창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창업동아리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동아리 전용공간조차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창업지원 사업에서는 창업동아리에게 제공되는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며, 청년창업의 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의지가 부족함에 따라 공간 제공의 실질적 주체인 대학은 학생창업에 대해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정책을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창업화사업화 지원 사업’과 교육부의 ‘LINC사업’은 규모가 가장 큰 대표적인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지만 여기에서 지원하는 창업동아리 육성은 총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교육부, 2013).

특히 대학생들이 사업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멘토링 시스템인데, 멘토 역할을 하는 대학 교수 및 전문가들에게 별도의 보상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어렵다. 또한 전담하는 멘토의 수가 현저히 적고 겸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업무 집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과 실태조사 결과,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고려하여 향후 창업동아리를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제1절 정부 차원의 정책과제

### 1. 청년창업 지원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고용 문제가 심각한 국가·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청년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더구나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는 정부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제한된 사업대상을 두고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각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청년창업과 관련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청년창업 지원 법률과 관련해서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에관한법률’(이하 산학협력촉진법)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 등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청년창업은 산학협력의 최종 산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산학협력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 및 긴급성, 청년창업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따른 부처 간 업무조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년창업 지원 법률에는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지식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방안, 창업동아리에 관한 규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창업교육의 정규 교과 과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이나 핀란드 등 창업선진국에는 모두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동아리 구축 단계, 창업보육 단계, 창업보육 이후 단계 등 창업 단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창업이 거의 불모지에서 추진되고 있어 자칫 일회성 구호로 그치거나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창업생태계가 척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창업에 나설 경우 성공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고, 이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 창업관심자 중 청년창업에 부담감을 갖는 청년들의 비중이 56.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아이디어에 기초한 지식창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촘촘한 지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우수한 창업아이템의 발굴 및 제공

앞의 제4장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관심 학생들 중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보다 창업활동에 나설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창업계획에 나설 확률이 무려 7.271배나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설적으로 학생들이 창업에 소극적인 이유가 창업아이템의 빈곤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청년창업가는 반드시 독자적인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공과계열 학생들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도 얼마든지 아이템만 갖추면 청년창업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산업 분야에서 창업아이템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 가능하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경쟁력 있는 대기업이나 과학기술 연구기관, 대학교수 등이 보유한 미사용 특허를 정부가 중재하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기업은 있지만 아이디어가 충만한 대학 청년창업가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 현실에서 대기업과 청년층,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글로벌 기업인 노키아가 앞장서서 ‘노키아 테크노폴리스 혁신 제작소’(Nokia Technopolis innovation mill)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특허나 각종 연구개발 콘셉트들을 공유하고 있다(박동 외, 2010). 노키아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매년 수백 또는 수천 개의 연구개발 콘셉트들을

보유하게 되지만 그중 극소수만이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사용 지적재산을 미래세대나 중소기업과 공유함으로써 노키아는 자신들이 스스로 연구개발비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후속 연구개발 성과를 확보하는 이득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로비오의 성공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노키아가 주최한 게임개발대회에 참여한 청년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청년창업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노키아 못지 않게 수많은 연구개발 콘셉트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콘셉트들 중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들을 정부가 중재하거나 또는 대기업 자체의 공개발표회 등을 통해 유사 분야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면 청년창업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도 다양한 창업아이템이나 특허, 콘셉트 노트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중 직접 창업이 어려운 경우 이를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나 관심 분야 청년들에게 매칭시켜 준다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년들이 창업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발명품 경진대회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을 기획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포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정부 각 부처들이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지만 우수한 창업아이템 발굴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5장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스탠포드 대

학이나 MIT 대학의 경우 우수한 발명품 또는 아이템으로 수상한 학생들에게 수만 달러의 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금은 학생들의 미래 창업을 위한 시드머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각종 경진 대회에서 수상한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창업을 위한 아이템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 3. 전국적인 창업동아리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청년창업에서는 멘토링이 매우 중요하다. 제5장의 국외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각국에서는 청년창업을 위한 멘토/멘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아리 지도교수는 물론이고 학내외 전문가, 경험 있는 창업가, 투자자 등 다양한 전문인력의 멘토링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의 조사 분석 결과 창업에 관심을 둔 학생들의 경우 67.9%가 청년창업을 위해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학생들이 멘토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 사업방향에 대한 검토, 최신정보 습득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청년창업을 위한 멘토링 지원이 부재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40.4%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 중 멘토링을 경험한 사람은 1/4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청년창업에서 '멘토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창업을 계획할 확률은 1.324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는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멘토링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교육부에서도 LINC 사업 등을 통해 창업멘토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부에서는 벤처 1세대 경험자들을 멘토단으로 구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청년 창업동아리를 전국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하고 실제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멘토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실효성이 문제로 남아 있다.

청년창업 멘토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학생 창업동아리를 지도하는 교수, 대학 내 BI 매니저 등 창업 전문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의 과학기술자, 민간 창업전문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멘토 자원을 전국 수준에서 네트워킹하여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 멘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야별로 외과수술적 처방을 하는 방식으로 멘토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창업동아리 활동은 창업아이템 또는 창업아이디어를 선정 평가하고, 그 아이템을 구현(시작품 제작)하는 데 활동의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2)</sup> 이러한 아이템 구현을 위해서는 동아리 지도교수의 기술적 지도와 조언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동아리 지도 활동을 교수의 교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수업적 평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동아리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련 분야 기업체 임직원, 동아리 선배 창업자들을 멘토로 위촉함으로써 지

12)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동아리 지원 사업의 경우 1년 단위의 연차평가에서 아이템 구현 정도를 평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화 진행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창업성공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속적인 멘토-멘티 관계 구축 및 각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나 핀란드 등 국외 사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멘토를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4. 다학제적 창업동아리 조직 지원

제5장의 국외 사례 중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나 핀란드의 알토대학의 경우 다학제적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 STVP의 창업교육에는 공학만이 아니라 경영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청년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알토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공학, 경영학, 디자인 학과의 융합을 목표로 하였다.

창업동아리 활동에서 다학제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창업이 단순히 아이템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능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학생들의 집단적 창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종 분야에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동아리가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창업동아리의 구성 자체를 처음부터 학제 간 융합동아리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제 간 융합동아리 구성을 위한 팀 매칭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다. 핀란드의 알토대학이 수년간 사전준비를 거쳐 3개 분야의 융합을 시도한 것도 이종학문 간 협력과 융합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알토 융합대학 모델은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하여 학교 측과 다양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그나마 3개 대학이 모두 국립대학이었기 때문에 융합대학 창립이 가능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창업동아리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은 초기 상태이므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매개로 다학제적 융합동아리 창출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융합동아리의 조직 성과를 사업성과 및 평가에 반영시킴으로써 다학제적 창업동아리 조직을 지원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모든 창업동아리는 창업을 목표로 설정하도록 하고, 동아리 운영 시 실제로 필요한 분야의 전공자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는 물론 학생들 스스로의 자율적 조직화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창업동아리 결성 초기에는 전국적으로 창업캠프 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여기서 아이디어의 발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법, 사업계획서 작성법, 짧은 자기소개, 사업개요 또는 아이디어 발표, 이종 분야 학생들 사이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방법 등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가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5. 초기 단계의 창업기업 지원 기금 조성

청년 지식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청년창업에 대한 정밀한 진단에 입각해 초기 투자기금 지원 방안을 설계해 나가야 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SVCC나 MIT 대학의 기업포럼 등은 청년창업가들과 벤처투자자들 사이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중국적으로 엔젤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알토대학에서도 스타트업 사우나 프로그램

을 통해 청년창업자들과 벤처투자자를 연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sup>13)</sup>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창업에 따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외부 투자의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이에 비례해 학생들의 창업 의지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학생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초기 창업기업 지원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나가는 것과 병행하여 학생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자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래의 <표 6-1>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 5천억 원을 상회하던 엔젤 투자규모가 2010년에 326억 원으로 감소하여 전체 투자액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중소기업청, 2012). 2000년 당시 IT 붐이 꺼지고 투자열기가 냉각되면서 엔젤 투자금의 규모는 2011년 말 현재 2000년 대비 5.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투자자 수는 2000년 대비 2.1%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아울러 벤처캐피탈의 창업 초기투자 비중도 2000년 72%에서 2010년에는 29%에 불과하였다.

<표 6-1> 우리나라의 엔젤투자 현황(2000~2011년)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업체 수(개)	1,291	1,007	573	453	194	174	238	220	152	87	83	39
금액 (억 원)	5,493	3,409	1,109	3,031	463	820	971	897	492	346	326	296
투자자 수 (명)	28,875	12,002	4,717	3,964	2,246	2,107	2,727	2,170	1,742	1,243	748	619

자료: 중소기업청(2012)

13) 이 연구에서 직접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요즈마 펀드(Yozma Fund)를 비롯한 수많은 투자펀드를 통해 청년창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엔젤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2011년도 엔젤투자가 총 벤처투자 대비 비중이 43.6%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너무나 왜소한 규모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엔젤투자는 2011년 미국이 총 318,480명이 66,230개 기업에 투자하였으나, 우리나라는 619명이 39개 기업에 투자하는 데 그쳤다(중소기업청, 2012).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는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으나 창업생태계 자체가 취약하고,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실패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모태펀드 조성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창업 초기 단계, 특히 창업동아리 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벤처 캐피탈의 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우리나라는 무엇보다도 창업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정부와 벤처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없이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민간 자본과 매칭하여 학생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모태펀드를 별도로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태펀드의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생태계의 조성을 통해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투자자금을 직접 모으는 클라우드 펀딩 방식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조기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클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벤처육성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엔젤투자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 제2절 대학 차원의 정책과제

### 1. 대학 창업동아리 조직의 전국적 확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대학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대학에 창업동아리가 조직화되어 있다. 창업진흥원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3년 7월 초 현재 학생 창업동아리는 전국 대학의 40.8%에 만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창업조직률의 저조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수요가 부족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0명의 학생 중 향후 진로를 창업으로 선택한 학생은 총 103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1.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창업을 미래의 진로로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의 미래 진로지도를 위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제도를 구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여전히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창업동아리 전국조직인 전국학생창업네트워크(SSN)와 전국대학생창업동아리연합(NEST)이 출범하면서 창업동아리의 조직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대학 스스로가 이러한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조직화 흐름에 대해 얼마나 호응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이다.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대학평가와 연계하여 창업동아리 조직화에 대한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미국이나 핀란드 등 창업선진국들의 명문대학에서 우수학생들이 창업가가 되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취업 위주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창업가 양성을 위한 방향에서 각종 학내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 2.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제공

북유럽의 핀란드에서는 2008년까지만 해도 대학 내에서 성공적인 창업동아리 조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지금 핀란드는 유럽 최고의 창업동아리를 갖추고 있으며, 수천 명의 학생들과 기업인들이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핀란드를 찾고 있다.

헬싱키의 에스푸에 위치한 알토대학은 3개 대학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공학, 경영학, 디자인 등 다학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협력과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학생창업 공간들을 제공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디자인팩토리과 벤처캐러지이다. 이러한 학생들 사이의 협업공간은 다양한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학생들 사이의 집단적 창조성을 배양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청년창업을 위해서는 공간이 중요하다. 공간이 없이는 학생들이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주도하는 창업동아리 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4장에서 학교 내에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공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대해 응답자의 2/3가 어떤 형태로든 창업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내 지원 정도에 대해서는 23.3%만이 ‘많다’고 응답하고 30.9%는 ‘없다’고 응답해 이들 공간이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창업 전용공간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융합함으로써 새롭고 유용한 지식을 학습하고 창조성을 길러낼 수 있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적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 동료 학생 및 선후배들의 살아 있는 지식을 흡수하고 체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생 창업동아리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지원 또는 재정 지원 및 학교평가 등과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창업의 활성화는 학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당국이 실질적으로 창업동아리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3. 대학 내 학생 창업동아리 멘토링 시스템 구축

학생 창업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 제공 등 하드웨어적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창업동아리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교수의 입장에서도 지도하기가 보다 수월한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창업동아리 활동을 통해 토론식 학습을 생활화함으로써 나홀로의 도서관 학습,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다양한 학생들이 하나의 공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한 가운

데 융합형 실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교육부와 중소기업청이 앞장서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지만 멘토링 그 자체가 사업목표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미래부에서 벤처1세대 멘토단 지원 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전국적으로 창업동아리를 망라하기에는 멘토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에 창업동아리를 조직하고 이에 대한 멘토링을 강화하려면, 결국 대학교수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상황 속에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는 멘토교수 등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멘토교수들의 활동을 교수업적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교수업적 평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가 협력하여 교수들의 창업동아리 지도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Acceleration of Knowledge Start-ups through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ocieties**

Tong Park, Soo Jin Kim, Jong-sun Lee

#### **1. Outline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find ways to promote knowledge start-ups through student-led entrepreneurship societie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government policies for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ocieties,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student-led entrepreneurship organizations and the excellent domestic and foreign cases.

First, we reviewed the theoretical discussions related to the youth start-ups and the entrepreneurship societies. This study bases on the assumption that youth start-ups don't depend on a small number of genius. That's why we focused on the student-led organizations where students can engage in a collective creativity.

Second, we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government's policies for student-led entrepreneurship societies. The government's policies for the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ocieties were analyzed for each ministry, and their problems were assessed.

Third, we conducted a survey related to the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ocieties. The 900 samp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questionnaire focused on the prospects of youth employment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youth start-ups, youth entrepreneurship societies,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youth entrepreneurship societies, and mentoring systems for youth start-ups.

Finally, domestic and foreign cases that could play a role model for the invigoration of the youth entrepreneurship societies were analyzed. By studying the actual working mechanisms of the youth entrepreneurship societies in Stanford university, MIT university, US and Aalto university in Finland, and Hoseo University in Korea, the implications for the activation of Korea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ocieties were derived.

## **2. Main Findings**

First, it was certified that the lower the possibilities of employment were,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planning student start-ups. In other words,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planning a start-up.

Seco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if we reduce the burden of failure, the more student will take part in the youth start-ups. This means that we need to institutionalize youth start-up ecosystem that

minimizes the risks for start-ups.

Third, when students possess start-up items, the possibility of planning a new business is increasing dramatically. This certifies that start-up items critically matter for the young starters.

Fourth,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activitie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ocieties are much more active in planning student start-ups. Through the activities of student-led entrepreneurship societies, most of the students can hedge various risks, exchange numerous informations through mutual networking.

Fifth, the role of mentors does matter in the youth start-ups. This verifies that to accelerate the youth start-ups we need to support not only a financial help but a practical advice to solve the real problems which new starters face in the early stages of business. In this regard,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a nation-wide youth mentoring systems.

Finally, the longer the entrepreneurship societies' membership period lasts,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planning a youth start-up. The student-led entrepreneurship societies encourage the acceleration of knowledge start-ups, business incubations by serving as a meeting places where various students can meet together at any time. Through the activities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ocieties students can have a lived experience.

### **3. Policy Implications**

By studying student-led entrepreneurship societies, we could deri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which are as follows.

First, to activate the youth knowledge start-ups, we need to enact a law which supports the youth labor market formation. Currently, we are facing a serious youth unemployment problem. Nonetheles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still insufficient.

Second, finding and offering start-up items and ideas does matter. To do this, the government need to act as go-between university student and major industries to collect and distribute unsolved concepts and technological problems.

Third, to find a new idea and promote youth start-ups, we need to establish a nation-wide mentor networking systems. To achieve this goal, the incentives for the mentor professors, BI(Business Incubation) managers, scientists should be developed comprehensively.

Fourth, it is nessary to organize interdisciplinary entrepreneurship societies to maximize students' collective creativity. Only 40% of universities have student-led entrepreneurship societies. In other words, there is still room for government intervention.

Finally, to activate youth knowledge start-ups, government funding for the youth starters need to be expanded drastically. Furthermore, it is very important to institutionalize youth start-up ecosystem that minimizes the risks for start-ups.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2). “대학정보공시, 2012년 대학 계열별 취업률 공개,”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 교육부(2012a).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사업 기본계획(안).”
- \_\_\_\_\_ (2012b). “2012 U - Startup Contest 개최 공고.”
- \_\_\_\_\_ (2012c). “창업을 꿈꾸는 전국 대학생들이 모인다: 「전국 학생  
창업 네트워크(SSN) 출범 워크숍 개최」” 보도자료.
- \_\_\_\_\_ (2013a). “2013년도 LINC 시행공고문,” 보도자료.
- \_\_\_\_\_ (2013b).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연차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 \_\_\_\_\_ (2013c). “2013 U - Startup Contest 개최 공고.”
- 기획재정부(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실천  
계획(공약가계부) 발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김주미 외(2008). 『우리나라 창업교육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창업대학원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2013). 『박근혜 정부 국정 비전 및 목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2013), “「벤처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추진 계획」  
발표” 보도자료.
- 박동 · 김안국 · 황규희 · 이종선 · 이봉주(2010). 『청년 지식기술 창업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2011), “청년, 창업으로 사장되기 2011,” 청년  
창업센터 성공사례집.

- 서울특별시청(2013).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모집공고.”
- 양현봉·박정복(2011).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 이윤준(2012). “캠퍼스 CEO 3만명 육성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윤준 외(2012).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이종선(2004). “지역혁신의 효시: 실리콘 밸리와 루트 128,” 『세계의 지역혁신체계』,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5). “선진국 혁신 클러스터 성공사례와 시사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편. 『HRD Review』 겨울호 24~39쪽.
- 전자신문(2012.11.12.). “SSN ‘대학생 창업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 ”.
- \_\_\_\_\_ (2013.4.22.). “[스타트업 2.0]청년창업의 성공 지원모델 ‘SBA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
- 중소기업청(2012). “본격적인 엔젤투자의 시대가 열린다.” 보도자료.
- \_\_\_\_\_ (2013a). 「2013년도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공고」.
- \_\_\_\_\_ (2013b). 「2013년도 창업 지원 사업」,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진흥과.
- \_\_\_\_\_ (2013c). 「창업 지원 정책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계획」, 창업 지원 정책 모니터링 간담회 자료.
- 창업진흥원(2013). “대학 창업교육 인프라 실태조사 결과보고” 창업진흥원 조사연구팀 조사자료.
- 최종인(2013). 『대학 창업교육 로드맵 개발』, ‘2013 대학 창업교육·창업문화 한마당’ 발표자료.
- 통계청(2013). “2013년 5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수학 · 과학 성취도 추이 변화 국제비교연구 (TIMSS) 2011.”

<http://2030.seoul.kr/> 서울특별시 청년창업센터 홈페이지.

<http://bridge.kiu.ac.kr/> 경일대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http://seoulvi.com/> (사)벤처기업협회 서울벤처인큐베이터 홈페이지.

<http://sundo.kised.or.kr/> 창업선도대학 창업사업화 지원 홈페이지.

<http://sundo.kised.or.kr/> 창업선도대학 홈페이지.

<http://venture.yonsei.ac.kr/> 연세대학교 창업 지원단 홈페이지.

<http://www.changupnet.go.kr> 창업넷 홈페이지.

<http://www.kised.or.kr/>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ba.seoul.kr/>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start-up.or.kr/> 전국 대학(원)생 기술사업화 경진대회 홈페이지.

<http://www.studentstartup.or.kr/> SSN 홈페이지

<https://startbiz.changupnet.go.kr/> 창업 지원 온라인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Aaltoes(2012). *Aaltoes Yearbook 2011*.

Amabile, T.(1996). *Creativity in context*. Boulder, CO: Westview Press.

Bharadwaj, S. & Menon, A.(2000). “Making innovation happen in organizations: Individual creativity mechanism, organizational creativity mechanism or both?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17, pp. 424~434.

Bissola, R., & Imperatori, B.(2011). “Organizing individual and collective creativity: Flying in the face of creativity clichés.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Vol.20 No.2, pp. 77~89.

- Brown, Justin. T. and Andrew C. Kant(2008). “Creating bio-entrepreneurs: How graduate student organizationsn foster science entrepreneurship.” *Journal of Commercial Biotechnology*. pp. 1~11.
- Burt, Ronald(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ygrave, W. D.(2004). “The Entrepreneurial Process.” in W. D. Bygrave & A. Zacharakis eds. *The Portable MBA in entrepreneurship*.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Carlile, R.(2002). “A pragmatic view of knowledge and boundaries: Boundary objects in new product development. *Organization Science*, 15, pp. 555~568.
- Drazin, R., Glynn, M., & Kazanjian, R.(1999). “Multilevel theorizing about creativity in organizations: A sensemaking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24 No.2, pp. 286~307.
- Fornahl, Dirk(2003). “Entrepreneurial Activities in a Regional Context.” in Fornahl and Brenner eds. *Cooperation, Networks and Institution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Edward Elgar.
- Grabher, G.(1993). “The Weakness of Strong Ties: The Lock-in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Ruhr Area.” in Grabher ed. *The Embedded Firm: On the Socioeconomics of Industrial Networks*. London: Routledge.
- Hargadon, A., & Bechky, B.(2006). “When collections of creatives become creative collectives: A field study of problem solving at work. *Organization Science*, Vol.17 No.4, pp.484~500.

- Leonard, D.(1995). *Wellsprings of knowledge. Building and Sustaining the sources of innovation*.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Morrison, E. and F. Milliken(2000). “Organizational Silence: A Barrier to Change and Development in a Pluralistic World.”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5 No.4, pp. 706~725.
- Nooteboom, Bart(2003). “Problems and Solutions in Knowledge Transfer.” in Fornahl and Brenner eds. *Cooperation, Networks and Institution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Edward Elgar.
- Oldham, G., & Cummings A.(1996). “Employee creativity: Personal and contextual factors at work.”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 pp. 607~634.
- Parjanen, S.(2012). “Experiencing Creativity in the Organization: From Individual Creativity to Collective Creativit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Information, Knowledge, and Management* Vol.7.
- Romer, P. M.(1994). “Beyond Classical and Keynesian Macroeconomic Policy.” *Policy Options*. July-August 1994.
- Rooney, D.(2010). “Creatively Wise Education in a Knowledge Economy.” in Araya, D. and Peters, M. A. eds. *Education in the Creative Economy*, Peter Lang.
- Schumpeter, J. A.(1950).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3rd ed., Harper & Brothers Publishers, N. Y.
- Seri, Paolo(2003). “Learning Pathologies in Losing Areas: Towards a Definition of the Cognitive Obstacles to Local Development.” in Fornahl and Brenner eds. *Cooperation, Networks and Institution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Edward Elgar.

Taggar, S.(2002). "Individual creativity and group ability to utilize individual creative resources: A multi-level mode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45 No.2, pp. 315~330.

Ward, Thomas B.(2003). "Cognition,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5228 (2013) 1-16.

Woodman, R., Sawyer, J., & Griffin, R.(1993). "Toward a theory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8, pp. 293~321.

World Bank(2012). *World Development Report 2013*.

<http://bases.stanford.edu/>

<http://biodesign.stanford.edu/bdn/index.jsp>

<http://mitsloan.mit.edu>

<http://sen.stanford.edu/>

<http://startx.stanford.edu/>

<http://stvp.stanford.edu/>

<http://vc.stanford.edu/>

<http://web.mit.edu/invent/>

<http://web.mit.edu/tlo>

<http://web.mit.edu/vms/>

<http://www.mit100k.org/>

[www.aaltoes.com](http://www.aaltoes.com)

[www.aaltoes.fi](http://www.aaltoes.fi)

[www.businessinsider.com](http://www.businessinsider.com)

[www.forbes.com](http://www.forbes.com)

[www.gsb.stanford.edu](http://www.gsb.stanford.edu)

[www.gsbeclub.org](http://www.gsbeclub.org)

[www.mit.edu/e-club](http://www.mit.edu/e-club)

[www.mitenterpriseforum.org](http://www.mitenterpriseforum.org)

[www.rovio.com](http://www.rovio.com)

[www.supercell.net](http://www.supercell.net)



부 록



## 부록 | 설문지

##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 실태 조사 - 대학생용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소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당면한 청년 실업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을 연구하고, 특히 대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대학의 청년창업 지원 및 대학생의 창업동아리 활동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청년고용 및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 청년 창업동아리, 청년창업 멘토링, 창업동아리 활동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고견이 우리나라 대학 창업동아리 실태 파악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가 됨을 양지하시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고,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되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셔서 귀하의 고견이 향후 창업을 통한 청년고용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5월

(주)리서치알앤에이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주관연구기관

◆ 조사대행기관: (주) 리서치알앤에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창업동아리에 가입하셨거나, 가입은 하지 않았으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동아리 및 청년창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내용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는 현재 청년창업에 관심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 설문 종료]

### I. 청년고용 및 청년창업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자신이 졸업 후 곧바로 취업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어려울 것임              ② 다소 어려울 것임              ③ 보통  
④ 다소 쉬울 것임              ⑤ 매우 쉬울 것임

2. 귀하는 향후 자신이 현재 전공하고 있는 분야 또는 이와 연관된 분야로 취업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어려울 것임              ② 다소 어려울 것임              ③ 보통  
④ 다소 쉬울 것임              ⑤ 매우 쉬울 것임

3. 귀하는 졸업 후 자신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 ① 대기업 취업    ② 중소기업 취업    ③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④ 전문직(자격시험)  
⑤ 창업            ⑥ 가업 승계            ⑦ 학업 지속                      ⑧ 당분간 설 예정  
⑨ 기타 (                      )

4. 귀하께서 현재 청년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취업이 어려워서                      ②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하고 싶어서  
③ 부모님, 친지 등 지인이 권유해서    ④ 리더십 발휘 등 자아실현을 위해  
⑤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서              ⑥ 사회적 평판/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⑦ 높은 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⑧ 나이에 제약 없이 장기간 일하고 싶어서  
⑨ 기존 조직생활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⑩ 기 타(                      )

5. 귀하가 느끼는 향후 청년창업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

6. 귀하께서 향후 청년창업의 실패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                      ② 재정적인 부담  
③ 자신감 상실과 좌절감                                      ④ 취업 포기로 인한 기회비용  
⑤ 기타 ( )

## II. 청년 창업동아리

7. 귀하는 향후 5년 이내에 청년창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8. 귀하는 현재 향후 청년창업을 시작할 구체적인 창업아이템을 갖고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9. 귀하께서 향후 청년창업을 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어느 분야의 창업에 관심 있습니까?

- ① IT 서비스업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② 미디어, 언론, 콘텐츠 분야  
③ 일반 자영업 (요식업, 유통업 등)                              ④ 제조관련 분야 (각종 용품개발 포함)  
⑤ 교육 서비스 분야    ⑥ 건설, 토목, 기계 관련 분야  
⑦ 전기전자 관련 분야    ⑧ 바이오, 화학 분야  
⑨ 문화, 예술, 스포츠, 레저, 공연 관련 분야                      ⑩ 기타 ( )



16. 귀하께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창업동아리 활동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소극적                      ② 다소 소극적                      ③ 보통  
④ 다소 적극적                      ⑤ 매우 적극적

17. 귀하는 교내의 창업동아리 경진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22번 문항으로]

18. 귀하가 참여한 교내의 창업동아리 경진대회는 어느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러움                      ② 다소 불만족스러움                      ③ 보통  
④ 다소 만족스러움                      ⑤ 매우 만족스러움

19. [☞ 18번 문항의 ①, ② 응답자만] 귀하가 참여한 창업동아리 경진대회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형식적인 대회 진행                      ② 평가의 공정성 확보 어려움  
③ 행사 규모가 작음 (소수의 참가자 등)                      ④ 경진대회 참여에 대한 학교지원 부족  
⑤ 수상자에 대한 보상 수준이 기대 이하                      ⑥ 복잡한 지원 과정  
⑦ 기타 (                                      )

20. 귀하는 창업동아리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22번 문항으로]

21. [☞ 20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귀하의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입상 경험이 향후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                      ③ 보통  
④ 다소 도움이 될 것임                      ⑤ 매우 도움이 될 것임



28. 귀하의 학내에서는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투자(예:엔젤투자)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없음                      ② 별로 없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매우 많음

29. 귀하는 현재 창업동아리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년창업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      ② 선후배 관계가 경직되어 있음  
③ 전용공간, 시설장비 등의 인프라가 부족함      ④ 동아리 운영비가 부족함  
⑤ 교수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함      ⑥ 기타 (                              )

### Ⅲ. 창업동아리 활동의 애로사항 및 활성화 방안

30. 귀하는 현재 학내외의 창업동아리 활동 환경이 어떠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열악함                      ② 다소 열악함                      ③ 보통  
④ 다소 좋음                        ⑤ 매우 좋음

31. 창업동아리 활동 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                              ② 동아리 활동 전용공간 미비  
③ 학생간의 소통 부족                                ④ 교수의 소극적인 지도 태도  
⑤ 정규 수업과정과 병행하기 어려움              ⑥ 선배들의 성공사례 부재 또는 홍보 부족  
⑦ 기타 (    )

32. 귀하께서는 학생들의 창업동아리 참여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한 개선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창업동아리 재정 지원 확대                        ② 동아리 활동 전용공간 제공  
③ 창업관련 소통의 기회 확대                        ④ 교수의 적극적인 참여  
⑤ 창업활동 관련 정보 제공 확대(성공사례 포함)      ⑥ 창업교육 활성화(정규교과 편성 등)  
⑦ 기타 (    )

**IV. 청년창업 멘토링**

33. 귀하는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창업 관련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35번 문항으로]

34. ☞ 33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정부 지원 청년창업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원 사업에 어느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스러움
- ② 다소 불만족스러움
- ③ 보통
- ④ 다소 만족스러움
- ⑤ 매우 만족스러움

35. 귀하는 청년창업을 위한 교수 및 산업체 대표 등의 멘토링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불필요함
- ② 별로 필요하지 않음
- ③ 보통
- ④ 필요함
- ⑤ 매우 필요함

36. ☞ 35번 문항의 ④, ⑤ 응답자만] 청년창업에 대해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문 지식에 대한 자문을 위해
- ② 최신 청년창업 지원 정보의 습득 위해
- ③ 창업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해
- ④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
- ⑤ 해당 청년창업 분야의 적절한 전문가 (해당전공교수 등)를 소개받기 위해
- ⑥ 사업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한 창업 실패 위험 감소
- ⑦ 기타 ( )

37. 귀하의 학내에서는 청년창업을 위한 교수 및 산업체 대표 등의 멘토링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② 거의 없음
- ③ 보통
- ④ 다소 활발함
- ⑤ 매우 충분함



**- 설문조사 응답자 확인사항 -**

1) 귀하의 전공계열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인문/사회계열                  | ② 경상계열(경영·경제 등)  |
| ③ 공학계열(IT계열)               | ④ 공학계열 일반(비IT계열) |
| ⑤ 자연계열(물리·수학 등)            | ⑥ 예체능계열          |
| ⑦ 기타(                    ) |                  |

2)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① 학부 1학년                   | ② 학부 2학년 |
| ③ 학부 3학년                   | ④ 학부 4학년 |
| ⑤ 기타(                    ) |          |

3) 귀하가 창업동아리에 가입한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년        (        ) 개월

성 명		연락처(휴대폰)	(    ) -
소속 학교 명		학과 명	
성 별	남 / 여	연 령	만 _____세
면접일시	2013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저자약력

- 박 동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김수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이종선
  - 미국 켄트대학 객원연구원

대학 창업동아리를 통한 지식창업 촉진 방안

- 발행연월일 2013년 7월 29일 인쇄  
2013년 7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박 영 범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47길 46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8-89-6355-418-1 93320
- 인 쇄 처 범신사 (02)503-8737